

머 리 말

흔히 어른들은 지난 날 자신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는 버릇이 있다. 지내 보았으니 자기들이 청소년기를 더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그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 등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보고 청소년 문제를 해석·판단·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한걸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이 되고 그때의 어른들이 청소년을 문제삼아 우려하던 말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요새 젊은 놈들은……”라는 접두사로서 발언을 시작하는 한 정형화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형화된 인식이란 한 마디로 청소년들을 어른의 안경, 좀 더 과장되게 말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어른들의 안경이 정말로 청소년들을 보는 데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개발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좁은 틀로서 보아 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청소년 문제에는 이러한 접근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이나 사실보다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보다 강조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제를 역동적이고 발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청소년들의 경험된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른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이 쓰는 안경의 적절성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공통의 관심사의 주변에서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시리즈)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관계, 청소년과 학습·진로문제, 청소년과 이성문제, 청소년과 비행, 그리고 청소년과 정신건강 등의 5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어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10개의 주제들은,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관해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전제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체육청소년부와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진들의 창의와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1990.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이 윤 구

차 례

청소년의 흡연과 부모의 흡연

10대는 왜 술을 마시는가

대중매체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는가

오락실, 만화방, 디스코장은 청소년 비행의 온상인가

불법·저질 비디오 우리 자녀를 망친다

환각제와 약물을 찾는 십대

심각한 청소년 폭력

저는 잘못 태어난 아이인가요

청소년의 가출은 부모의 책임인가

문제아·문제학생·문제사회

청소년의 흡연과 부모의 흡연



한 남자고등학교의 박아무개 교사는 학생회장 선거를 앞둔 어느 날,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발표력도 길러주고 아이들이 평소 학교에 대해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 학생회장 선거유세’를 가졌다. 앞에 나와 반친구들에게 ‘내가 학생회장이 된다면’이란 주제로 짧은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열변을 토하며 유세를 하였는데 친구들의 가장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은 아이는 7군이였다. 그 아이는 ‘교내 흡연실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물론 모의유세였으니 만큼 다분히 장난기도 섞여 그러했을테지만 교교생들의 평소생활에 흡연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 작은 사건이었다며 박교사는 씁스레하니 웃었다.

실제 실험적으로 흡연실을 운영해본 학교도 있었다. 2시의 2교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교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담배 피우는 학생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던 학생들이 몰려들어 시장처럼 복적이는 흡연실에서 서로 마주앉아 연기를 뿜어내던 아이들은 판 친구의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내 모습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겠지’ 하는 생각에 더이상 담배에 대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생겨나지 않더라는 것이다.

담배공초 때문에 변기가 자주 막혀 아예 화장실마다 재떨이까지 설치해 두고 있는 고등학교도 있다.

일반학교에서도 교사들은 단속보다는 “교실에서는 피우지 말 것, 공초는 꼭 휴지통에 버릴 것” 등 사정하는 형편까지 되었다. 서울 2교교의 경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차 근신, 2차 유기·무기정학 처분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담임교사가 알아서 처리할 일’로 방침을 바꾸었다. 따라서 적발돼도 약간의 체벌이 고작이고 ‘너무 많이 피우지 말라’고 권유할 뿐이다. 또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사들이 출선해서 금연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서울 2교교는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화장실이나 교내 주변에

서 담배꽁초를 줍게 하는 ‘인과응보식’ 처벌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 2학년 학생이 적발돼 점심시간 동안에 담배꽁초 1백개를 줍도록 지시를 받고 3층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에서 꽁초를 줍다가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당수의 학생이 상습 흡연자가 돼 양말이나 화장실, 벽틈, 교실의 액자 뒤에 담배를 숨겨두거나 심지어는 영어, 국어 사전내부를 담배갑 크기로 판 뒤 담배를 숨겨 점심시간 등에 피우는 학생이 많아 이들 ‘골초학생의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교사들은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는데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줄어들기는 커녕 해마다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고3생의 70%가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나만 피우나요, 뭐.”

아들의 바지를 빨려다 담배꽁초를 발견한 어머니의 다그침에 요즘 청소년들의 반응은 당당하기조차 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실에도 흡연 때문에 고민하거나 죄의식을 느껴서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더 이상 없는 실정이다. 흡연 자체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못 느끼고 적발될 경우에 받는 처벌 때문에 고민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담배를 피우는 데 대해 ‘너무 이른 것 같다’거나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 견해는 39.5%인 반면 ‘잘못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 없다’, ‘고교시절의 추억일 뿐’, ‘이미 성인이니 괜찮다’, ‘친구관계나 그밖의 대인관계에 필요하다’는 등 긍정적인 대답이 60.5%나 된다는 사실은 흡연에 대한 청소년들의 죄책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제 그나마 규제가 가능한 곳은 학교 안에서 뿐이며 유흥가나

거리 등에서 담배를 물고 술 마시는 10대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흡연연령도 갈수록 내려 중학 초급학년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남자의 전유물이던 시대를 벗어나 여고에서도 담배가 ‘멋’으로 행세하게끔 된 판국이다. 특히 TV드라마에서 여성 연기자가 화가나 작가 등 예술가의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할 때면 으레 담배를 문 채 작업에 몰두하거나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연출해 내는데 이것은 특히 예술을 동경하는 사춘기 여학생들의 눈에 매우 멋있는 행동으로 비쳐 ‘여자라도 예술가가 담배피우는 것은 세련되고 멋있다’는 생각과 함께 닮고 싶은 충동까지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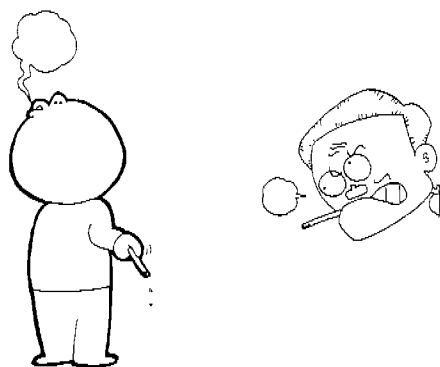
금연학교의 한 교사는 “담배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몸에 나쁜 것이지만 특히 사춘기 여고생은 담배를 피우면서 행동이 비뚤어지기 쉬운 문제”라면서 “더욱이 여고생은 몰래 숨어서 흡연하느라 부모와 선생님을 피하게 되고 담배값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거짓말로 용돈을 타내는 등 성격이 비뚤어지기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가 외국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양담배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화장실에서 나눠 피운 것이 담배를 피우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말한 애먼 얼굴의 한 여고생은 처음엔 기침이 나서 혼났지만 거듭 피우는 사이 습관이 들어 하루 보통 1갑을 피우는 꼴초가 됐다고 하였다. 여고생 중에는 또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믿고 흡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흡연동기에 비하여 남학생들은 대부분 성인 모방심리, 즉 친구나 주위사람들로부터 ‘어른이 다 된 남자’로 인

정받고 싶은 자기과시욕과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입시와 부모의 과중한 기대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주위의 흡연행동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춘기 소년들의 흡연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사회적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의 표현과 권위적인 부모를 모방하려는 증오적 동일시, 그리고 기분 좋게 내뿜는 담배연기 속에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유혹적인 호기심, 청소년 흡연을 금지하는 사회적 체제에 대한 반항심리에서 비롯된 도발적 흡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선교사들에 따르면 1, 2학년생들은 심각할 정도로 흡연자가 많은 건 아니나 3학년이 되면 부쩍 늘어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입시준비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고3인 한 남학생은 “수학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풀치가 아프면 담배 생각이 난다”면서 “집에서 내 방의 문을 걸어잠그고 부모님 몰래 몇 대씩 피운다”고 말하였다. 또 한 남학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루에 2~3개비를 피우는데 몸에 해로운 것은 알지만 공부 때문에 머리가 무거울 때 피우면 머리가 맑아져요.”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찾는 어른들의 흡연경향을 그대로 답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들의 흡연동기를 조사한 한 통계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호기심 (37.9%), 친구들 따라 피움 (17.2%), 멋있게 보이려고 (17.2%)가 많았고 고등학생들은 정신적 긴장해소 (35%), 욕구불만 (28%)을 꼽고 있다.

흡연 시작 시기에 대하여는 34%가 중3 재학중, 32.5%가 고1때로 응답, 66.5%에 달하는 숫자가 감수성이 강한 시기인 중3이나 고1때 담배를 처음 배운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에 집중적인 금연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놀랍게도 국민학교때부터도 5.8%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우리를 아연케 만들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중학생의 70.6%, 고등학생의 77.6%가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부모의 흡연이 자녀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 흡연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녀 앞에서 마구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부모의 흡연, TV 등에서 담배피우는 장면을 멋있게 묘사하는 행위 등이 청소년들의 성인모방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흡연량은 72%에 달했고 ‘하루에 한갑 이상’ 피우는 경우도 23%나 되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단지 12%만 피우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은 이러한 부모의 흡연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53%가 나쁘게 보고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86%가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를 기호품처럼 부모들이 애용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크게 생각해볼 것도 없이 그것을 남용하게 된 것은 아닐까?

부모들이 시키는 술 담배 심부름도 청소년들의 흡연에 큰 몫을 한다.

“애야...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너라.”

“가서 술 한 되 받아오렴.”

이런 어른들의 술, 담배 심부름에 선뜻 “네” 대답하고 나서 재빠르게 행동해야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착하다고 하지, 만약 “싫어요”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꾸중을 듣거나 ‘버릇없는 놈’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사회였고 가정예절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정도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뭐 그리 나쁘냐는 반문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폐쇄사회때의 가정교육 규범이므로, 청소년의 음주 흡연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오늘날엔 달라져야 할 심부름이 아닐까?

담배 심부름길은 아이들에게 향긋하고 단 생담배 냄새를 맡아 볼 계기를 자주 주게 마련이다.

“이게 뭐길래 어른들이 그러도 좋아하실까?”

이런 호기심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한 번 맛보고 싶은 충동이 부추겨지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45%가 자녀의 흡연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심지어 학교의 단속에 걸

려 금연학교에 보내진 아이들의 부모들 중에는 입시 공부하는데 악영향을 줄까봐 흡연을 모른척하거나 담배값이 없어 짜증낼까봐 용돈을 더 준다는 ‘문제부모’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흡연학생에게 가까운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학교 주변의 일부 만화가게나 분식집, 전자오락실 등에서 개비담배를 학생들에게 파는가 하면 아예 탁자마다 재떨이와 성냥까지 갖춰놓고 이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기도 한다. 서울의 S중학교 앞골목의 떡볶이집에서도 역시 개비담배를 팔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사던 이 아무개군(16세, 중3년)은 “한 학급에서 20명 정도는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개비담배 (아이들은 이를 ‘까치담배(가치담배)’라 부른다)를 휴지나 온박지로 싸서 넣고 다니며 피운 뒤에는 은단, 솔잎, 김치를 씹어 냄새를 없앤다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짓을 하든 상관 없다는, 현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에 대하여 한 청소년은 이렇게 항변한다.

“청소년 흡연이 나쁜 일이라면 학생들에겐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되잖아요? 학생인 줄 뻔히 알면서도 팔아 돈을 벌면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만 나쁘다하니 어른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흔히 청소년 비행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는 흡연이 70%에 달하여 바야흐로 청소년 흡연의 대중화(?)로 되어가는 추세 속에는 이러한 사회의 책임도 크다 아니할 수 없다.

“똑같이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눈감아주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벌을 줘요.”

한 고3 남학생의 푸념처럼, 입시위주 학교교육 또한 흡연을 방

치하거나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원초적 책임은 가정에 있을 것이다. 가족이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흡연률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킨다는 부모의 의식전환도 청소년의 흡연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청소년흡연을 비행문제보다는 건강문제적 측면에서 접근, 해결해가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 솔선해 나가고 있다.

약물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담배는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끊기 어려운데다 수험생들 사이에 알려진 것처럼 잠을 쫓기보다는 산소결핍으로 뇌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치명적”이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먼저 끊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행히 우리 청소년들의 72%가 앞으로 금연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금연하려는 이유에 대하여는 학교단속이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적 향상 (15%), 체력 증진 (14.9%) 등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금연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어느 고교생의 금연 일기를 읽으며 다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뒷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배웠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멋있어 보일 것 같아 뽐내는 기분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었다.

선생님께 들켜 혼이 난 뒤 ‘다시는 안하겠다’고 다짐한 끝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본드를 마시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 파출소에게 붙들려가게 되었다. 내 팔을 붙잡고 한없이 우시는 엄마를 보면서 ‘다시는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겠

다’고 깊이 반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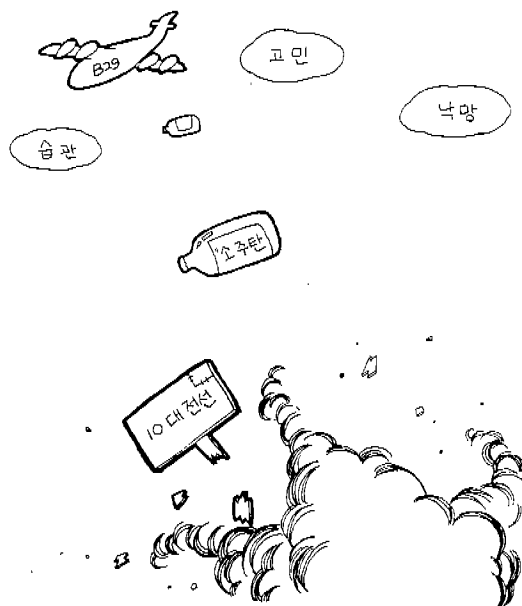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나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5일 금연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금연학교 첫날 비디오에서 본 폐암, 설암 환자들의 수술장면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일년에 수만 명이 담배해독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연기만 맡아도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주위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미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후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때면 나도 피우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이내 끔찍했던 비디오 장면이 떠올라 그 사람에게 그만 피우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됐다.

엄마는 ‘문제아’인 나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으시고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금연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한 잔을 쥔겨주시고 밥먹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먹도록 해주셨다.

금연학교를 마치고 무사히 학교로 돌아온 지금, 난 자신있게 친구들에게 말한다.

‘순간외 기분이나 습관때문에 소중한 젊음과 생명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0대는 왜 술을 마시는가



졸곧 여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남자고등학교로 부임해간 윤미선 (가명·28세)교사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어느 토요일 오후 자기 반 학생들의 방문을 받았다. 평소 아이들과 유독 친근했고 잘 어울리던 그녀였기에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꽃과 과일을 들고 수줍은 듯 들어서는 모습이 여간 사랑스럽지 않

왔다. 그런데 한 아이가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 받더니 가방에서 무얼 꺼내는 것이었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내용물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 그 아이의 가방 속에서 나온 것은 맥주 2병이었던 것이다. 내내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아이들도 놓치지 않았다.

“선생님, 오늘같이 좋은 날 한 잔 해야지요.”

뜻밖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평소 너그려웠던 선생님의 성격으로 보아 술 마시는 것도 허락하리라 여겼던 모양이다. 여긴 또 학교도 아닌 집이니까…… 그러나 윤교사는 아무리 사제지간에 친하고 격이 없는 것이 좋다 할지라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학생들의 음주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에서 정색을 하고서 술병을 빼앗았다. 오늘 한 번만 마시게 해달라고 맥주병을 뒤로 감추던 아이들은 윤교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엄격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념한 듯 술을 내놓았다. 그걸 사왔다는 집 앞의 슈퍼에 가 그녀는 볼멘 소리로 말했다. “줍전에 여기서 학생들이 이걸 사왔다는데 학생인 줄 알면서 아이들한테 술을 파시면 되나요?”

슈퍼주인은 별소리 다 들겠다는 듯 마땅찮은 표정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미안하다거나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반성의 기미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너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준 건 고맙지만 앞으로 술을 사갔고 온다면 그 자리서 내쫓을테니 그런 줄 알아.” 여러가지 음주의 해악을 얘기한 뒤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녀에게 아이들이 답한 말은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 주었다. “남자 선생님댁에 갈 땐 으레 술을 사가지고 가서 같이 마시는걸요. 1학년때 담임선생님 숙직하시면 학교로도 소주 사갔고 올라가곤 했는데……”

아이들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녀는 며칠 후의 봄소풍에서 그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어느 후미진 곳에서 마셨는지 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대낮부터 벌개져 있는데 어느 반에서는 담임교사가 반 아이들에게 술 한 잔씩을 따라 돌리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풍이 끝날 무렵엔 술에 취한 몇 학생들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들은 말리는 교사들에게도 대들어 화창한 봄날의 봄소풍은 당연히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놀라움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남학교에서 그것은 연례행사에 해당하고, 생각 보다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주에 대해서는 흡연의 경우보다 더 관대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게 되었다.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느냐는 그녀의 물음에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범생으로 불리는 아이였다.

“술이야 뭐, 국민학교 6학년때 벌써 마셔봤는 걸요. 제사때나 명절때 어른들이 주시는 거 안 받아마실 수 있나요? 시골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들 가정은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손님이 오면 으레 술상을 차려 유쾌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어린 나이에 가장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좋기 위하여 마시는 것이 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어른들이 배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은 술잔의 것을 훌쩍 마셔보고 싶은 유혹의 동기도 집안에서 자극시킨다.

결국 10대 청소년들이 맨처음 술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음주경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버지의 음주회수가 1주일에 1~2회 40%, 매일 마신다 11%로 나타난 수치로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형 등 가족들이 기호뽕처럼 술을 애용해왔기 때문에 10대들은 크게 생각해볼 것도 없이 그것을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적십자사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음주경험은 학교청소년 50.3%, 근로청소년 71.6%, 비행청소년 93.3%로 나타났다. 이들의 술집출입 비율도 학교청소년 19.6%, 근로청소년 46.6%, 비행청소년 84.3%나 되었다.

“술을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 교실에서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술을 예사로 마시는 아이들이 있다. 어떤 아이는 어저께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에 오늘 지각했다고 하기도 한다. 아는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지만 여학생 중에도 술을 마시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친구의 생일이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 갔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왔다. 우리는 신나게 먹다가 술그머니 술생각이 나서 친구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하고 술을 한 병 사다 주셨다. 모두 기분 좋게 마셨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가,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고등학교 2학년인 한 남학생의 이 글은 오히려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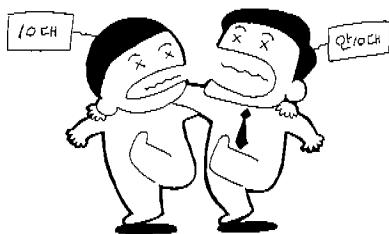
그러나 술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과 비행행위 경험과의 관련성은 매우 크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피로회복제 남용으로부터 약물 사용이 시작되며 비행행위는 무단결석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무단결석은 흡연을 시작한 직후부터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처벌과 때를 같이하여 가출이 시작, 음

주가 병행되고 가을 이후에 본드, 마리화나 등의 약물 사용이 일어나며 그 뒤에 음란비디오 관람과 성관계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주가 약물 남용의 시작이요 연결이라는 데에서 청소년 음주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의 10대들은 여전히 술을 찾고 있으며 그 이유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피로움을 잊기 위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41.8%에 달하는 ‘피로움을 잊기 위해서’이다. 피로움을 잊기 위해 - 10대들은 대체 무엇이 그리 피로와 그것을 술로서 잊어보려 할까?

그 피로움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피로움의 원인은 어른들이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 가정문제, 시험의 문제, 경쟁, 욕



구불만 동등…… 그 중에서도 으름가는 괴로움은 아마도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과다한 입시경쟁의 압박일 것이다.

현재 국교 6년 졸업생은 전국에 약 90만명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중학에는 대부분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91%에 이른다.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숫자가 약 10만명 정도이므로 매년 약 70만명이 고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대학은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24만 여명밖에 흡수를 못한다.

매년 대학에서 떨어지는 인구 45만명, 고등학교 탈락인구 10만명, 또한 중학교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못 가는 인구가 대략 10만명, 이렇게 해서 약 60만명 정도가 오고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50~60만명씩 축적되는 청소년인구를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 흡수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형성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가? 전무한 형편이다. 결국 입시경쟁에서 오는 이같은 긴장과 갈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군입대를 통해 다소 흡수도 되고 직장도 찾아가고 하지만 그 수치는 몇 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이도 20살 가까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더 자극이 큰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 청소년단체 임원의 말이다.

대입 학력고사 1백일을 앞두고 마시는 ‘백일주(百日酒)’의 희

한한 풍습은 또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그 날 저녁이면 온통 고 3생, 재수생인 10대들로 붐벼 들어설 자리조차 없는 술집은 이 나라의 서글픈 교육제도와 음주행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다.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매달려 숨막히게 살아온 우리 청소년들이 술, 그것도 정신을 가누지 못할 만큼 퍼마시는 폭음으로서 하루만의 도피처를 구하려는 몸짓은 차라리 가엾기까지 하다. 그들이 마시는 술의 분량만큼 입시라는 압박감이 짓누르는 괴로움도 컸던 것이었을까?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데 또 한 몫을 하는 것은 매스컴이다. TV드라마나 코미디의 술집 장면은 왜 그리 많은가? 드라마속의 주인공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술잔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해야만 하는가? 게다가 TV, 라디오의 술광고, 잡지의 원색 술광고의 문안과 선정적 사진은 호기심 많은 10대의 음주를 온연중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 눈을 돌려보자. 눈만 뜨면 늘어나는 게 술집이라는 말도 있었듯이 오늘 날 향락문화의 변창은 우리 사회를 말 그대로 ‘술 권하는 사회’로 만들고 말았다. 호기심과 충동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이 주고객인 심야다방에서는 음료수 대신 맥주를 팔고 디스코클럽도 마찬가지이다. 고급호텔의 나이트클럽이나 일부 성인 디스코클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스코클럽은 10대 전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미성년자 입장불가’라는 낱말을 문앞에 내놓고서도 ‘옷차림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핑계로 10대 청소년들을 마구 입장시킨다. 성인의 입장은 사절하고 아예 10대들만 골라 입장시키는 경우까지 있지만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당국에서는 각 구청별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적발된 업주나 청소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이태원 일대에 밀집된 1백여개의 무허가업소들도 2, 3개월에 한번씩 실시되는 형식적인 단속기간에 걸리면 몇 푼의 벌금을 낼 뿐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 년동안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같은 디스코장에서는 10대들이 학부모나 학교의 간섭과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리낄 것 없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푼다. 이곳에서 만난 한 남학생은 맥주를 병채로 들이키면서 “이게 사는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골때리거든요.”라고 내뱉는다.

커피, 경양식, 술 등을 함께 파는 카페는 최근 크게 성업하고 있는 새로운 유흥업종이다. 여유있는 고교생들이 이른 흥내를 내며 즐기기엔 안성마춤이기 때문에 10대들의 전용카페가 경쟁하듯 늘어난다. 책가방을 구석에 내팽개쳐둔 채 맥주를 들이키는 고교생들 속에서 “담배 한 갑 주쇼” 외치는 소리도 들린다. 여고 3학년인 한 여학생은 “카페는 주변이 어둡고 칸막이가 있어 울고 싶을 때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실 수 있어 좋다”면서 “여기 DJ가 마음에 꼭 들어 자주 온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온상인 청소년 상대 유흥업소의 난립이 방지되고 있는 사회적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때로 울고 싶은, 또는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찾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비고 3년 양아무개군은 “도대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항변하면서 입시의 긴장감을 풀 수 있는 건전한 오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니 쌓이는 스트레스를 분출할 데가 없어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소년들을 업주들이 장삿속으로 이용하고 있다. 종로의 음악다방 주인 김아무개씨(40)는 “처음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곤 했으나 그렇게 하다 보니 손님이 오지 않아 못 본 체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업주가 이렇다보니 종업원들이 탈선을 제지하기는 커녕 조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 남의 자식이야 버리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악덕유혹업자들의 ‘검은 상흔’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때까지는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던 학생이 재수생활을 하며 흡연과 음주에 빠져드는 경우도 흔하다. 재수생활이라는 마음의 쓰라림을 술로 달래보려는 심리도 있겠으나 이 때에도 역시 주범은 학원 주변의 나쁜 환경이다. 흥동가가 지척에 있는가 하면 학원건물 안에 유혹업소, 당구장, 전자오락실 등이 공존하기도 한다. 입시학원들이 주로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역, 청량리역 등 ‘윤리 취약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입시학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일정거리 안에 술집, 사창가 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둘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학원이 주변에는 갖가지 유혹업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더욱이 재학생들의 학원수강이 허용되어 더 많은 10대들이 학원가에 몰리는데도 유해환경을 정화하겠다는 어떠한 대책도 들려오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한 학부모는 안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요즘 학원가 주변엔 갖가지 유혹업소들이 뒤섞여 있어 아이들이 공부하러 학원에 다니는지, 유혹가에 놀러가는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온갖 교육공해 속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겠습니까? 그저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건강하게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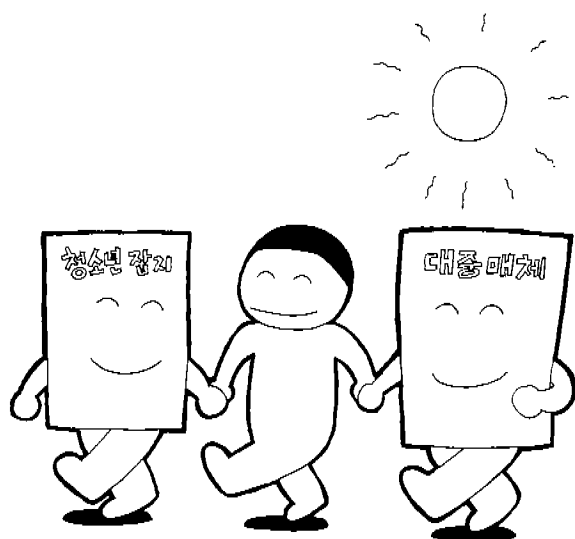
터 주기만을 기대하는 심정이지요.”

이러한 나쁜 환경과 타락한 향락문화, 그리고 술이 없으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대화,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다 남에게 술을 강권하는 우리의 사회풍토가 한데 어우러져 10대들을 술잔 속으로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의 문화란 결국 어른들 문화의 반영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술 한 잔은 건강을 위해, 두 잔은 즐거움을 위해, 석 잔은 방종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그리이스의 철학자 아나카리시스는 말하였다. 그러나 10대들은 즐거움의 두 번째에서 잔을 놓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방종의 석 잔째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기 이전에 어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는가? 건강을 위해서인가, 즐거움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방종을 위해서인가?”

대중매체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는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께 “토요일 오후 자녀가 집에서 TV 시청하는 것을 바라는가, 아니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몇 시간동안 운동을 하는 것을 바라는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자녀에게 운동복을 입혀 오늘 오후만이라도 편하게 몸

을 풀고 오라고 다독거리서 내보낼까? 아니면, 공부는 안하더라도 차리리 집에서 (즉 부모의 시야에서) TV를 보며 쉬기를 바랄까?

결과는 물론 TV 시청보다는 운동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진취적이며 건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운동장보다는 TV 앞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변화무쌍한 사춘기의 자녀가 자신의 가시거리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혼자 내보냈을 경우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량배들로부터의 뜻하지 않은 폭력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일생을 통해 가장 왕성한 활동 에너지를 담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생을 통해 가장 정적이고 조용한 앓은뱅이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십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에너지, 호기심, 충동감들은 모두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발산되고 충족되고 있을까?

집안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학원이나 독서실 등 제2의 학습장소로 옮겨 다니는 동안, 스스로 참여하거나 능동적인 노력 없이도 가능한 오락은 바로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는 대중매체들이다.

집에 돌아오면 30분의 여가가 있다 하더라도 남다른 취미생활을 하기보다는 이미 켜져 있는 TV 앞에 동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TV가 전달하는 내용을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 내용은 술잔을 기울이며 사랑의 실패에 고뇌하는 연속극 장면일 경우도 있고 폭력이 정당화되

는 외화물일 경우도 있다. 또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마음대로 몸을 흔들며 세상엔 고난이나 근심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그저 흔들고 노래하는 쇼의 한 장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귀가하여 처음으로 주어지는 자투리 시간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TV인 것이다. 그것은 비디오로 대체될 수도 있다.

잠시 생각해 보자. 오늘 당장 TV나 비디오가 우리의 생활 밖으로 사라진다면 부모들은 무엇을 하면서 저녁시간을 보내게 될까?

통계에 의하면 국민들의 60% 이상은 저녁시간의 3~4 시간을 그저 TV 앞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TV가 쏟아내는 온갖 정보에 자신도 모르게 마비되어 간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할 리가 없다.

오히려 요즘의 TV 프로는 주 시청 대상층인 청소년들을 겨냥하여 그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쫓아다니는 연예인들을 화면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TV 화면으로 접하게 된 그들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다른 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안달하는가 하면 보충해설 자료가 되는 잡지를 뒤져 그들의 신상 명세서를 달달 외우고 다니기도 하는 것이다.

한 여고 3학년생의 고민을 들어보자.

“제게는 약간은 이기적이고 순진하지만 무척이나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있으면 무엇인가 자꾸 잃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와 만나면 항상 나누는 얘기가 지금 한창 인기가 있는 가수 ○○○오빠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그 오빠를 사랑한다는 등, 오빠를 하루라도 못 보면 못살겠나 봐요. 그 오빠의 공연이 있는 곳에는 몇 시간을 걸려서라도 꼭 찾아 갑니다. 한심하기

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만날 때마다 관심있는 연예인 이야기만 하는 정도의 여학생은 그래도 그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TV 드라마에서 본대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잡힌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TV속에 나오는 음주 흡연(특히 여자탤런트의 경우)의 장면이 멋있게 보여 몰래 담배를 피워보다 꼴초가 되어버린 여학생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창 꿈에 부풀어야 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가슴과 눈을 만족시켜주는 선험의 대상이나 동일시의 대상 역시 TV를 통해서만 얻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TV 속의 가수나 프로스포츠인, 개그맨 등을 우상화함으로써 지적 세계에서 우상보다는 소비세계에서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스포츠마저도 직접 본인이 선수로서 참가하여 땀 흘리며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그저 신화로서, 스포츠 우상으로서의 프로선수에게 몰입할 따름이다. 그들은 도서관을 찾거나 고전을 읽어 책 속에서 존경의 대상을 찾는 대신 프로야구 중계에 정신이 빠져 있거나 디스코 클럽이나 전자오락게임에 심취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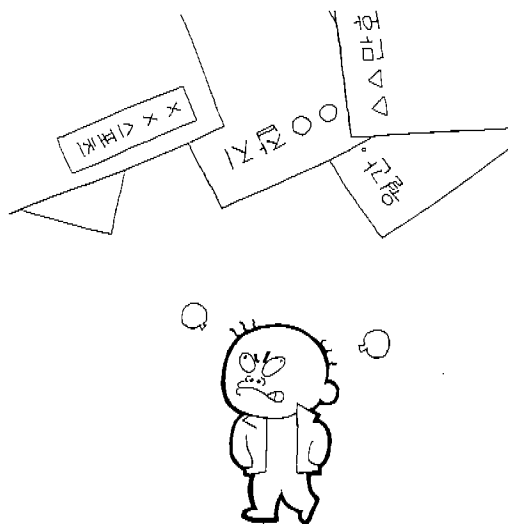
TV와 아울러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것은 비디오이다.

“1학년 실력고사가 끝난 후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처음으로 성인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직장에 나가시고 한 번 빌리는데 1,000원인 것에 대해서는 제 용돈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게 주인의 눈치를 보고 빌려오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개 뻗뻗이 쳐들고 빌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

니었지만 정신적으로 타락해 가고 순수함을 잃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심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 저를 괴롭히는 것은 비디오를 다 보고 나면 매번 자위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타락해가는 정신에 대해서 심한 경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처음 2학년 올라올 때는 반에서 1등이던 저의 성적은 7등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이 끝나는 날이나 한가한 시간이 생길 때 비디오를 보던 것이 이제는 시험기간 중에도 보고 시간과 기회만 생기면 보게 됩니다.

‘이번 한 번 쯤이야, 이거 한 번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등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견잡을 수 없이 퍼지고 아무리 결심해도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 버립니다.”



“고3이 되면서 부모님께서선 TV 과외 때문에 비디오를 사 주셨고 내가 손수 내 돈으로 빌려다 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켜다가 우연히 집에서 유선방송이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썩 잘 나오지는 않지만 AFKN과 더불어 시청자가 되었어요. 밤에 혼자서 TV 과외를 볼 때면 몰래 다른 곳을 보기도 했고 밤 2시까지 보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허무하고 기운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어요. 또한 어느 한 순간의 생각이 자위행위로 이루어지고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려요.”

영화나 TV처럼 대중에게 쉽게 충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매체는 없다. 음란 비디오를 보는 아이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폭력이나 살인이 정당화되고, 그 폭력과 살인 장면에 쾌감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거리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TV 속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두명의 희생자는 생겨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는 공중전화박스의 유리창쫂은 언제든지 깨뜨려도 좋은 것이다.

그런가하면 TV 광고를 통해 보게 되는 제품들을 어떻게든 지 가져야 한다는 충동 구매욕에 시달리게 된다. 그 욕망과 충동에 목덜미를 잡히게 되면 행인의 주머니를 터는 사회적 비행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만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의 행동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동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즉각적이고 향락적인 쾌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TV와 비디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TV와 비디오를 통한 오락을 먼저 포기하여야 한다. 부모는 TV 앞을

떠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책을 내밀어 보았댔자 그것은 이중의 부담이 될 뿐이다.

TV외에 인쇄매체로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이 만화와 청소년용 잡지이다. 그러나 청소년용 잡지라고 해도 꿈과 정서가 담긴 내용이 아니라 TV등의 전파매체의 역할을 보충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연예인의 신상명세서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다만 TV에서는 화면 너머의 막연한 우상이었던 연예인이 잡지 속에서는 그의 잠자리에 드는 시간부터 신발켄레 수까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흡족해 하는가 하면 사생활을 기억하고 선물 등을 보냄으로 해서 그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대리만족을 얻게 된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기보다는 동일시의 대상을 통한 대리만족에 그치거나 TV 속의 연예인처럼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끌려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되는 신데렐라적인 신분상승을 막연히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차근차근한 노력을 통한 성취는 실패자의 인생같고 고리타분하게 생각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루 아침에 모델을 시켜주겠다고나 가수로 취입시켜 주겠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든 따라나선다.

TV만 보아 온 청소년들의 의식은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연결된다.

만화의 경우, 그 기능상 표정이나 동작만으로도 표현이 이루어지며 주된 주제가 성과 폭력이라는데 만화를 꺼리는 우려가 담겨 있다. 특히 중학교 초기에 접하게 되는 한 권의 성인만화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 친구들과 몰래 돌려 본 음란 만화가 자위행위로 이어지고 자위행위로 인한 성욕은 근친

상간이나 성폭행으로 진전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친구들과 돌려본 만화 속의 표현을 확인해 보고 싶어 잠자는 국민학교 여동생의 신체를 만져보고 벗겨본 남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음란만화보다는 하이틴 로맨스류의 애정소설로 해서 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여학생들은 순결의 중요성이나 여성의 몸가짐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전에 하이틴 로맨스류의 애정소설에 표현된 잘못된 애정행로가 최고의 사랑인양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만나면 오래 젖눈에 서로 사랑을 시작해야하고 순결을 바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남학생들이 성인만화나 음란서적을 본 후엔 자위행위나 음란비디오로 연결된다면 여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이성교제를 하게 될 때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선 아이가 운동을 한다고 밖으로 나다니는 것보다는 TV 앞에라도 앉아 있거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방에서 앉아서 책을 읽는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고 아이들에 대하여 안심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 운동부족으로 신체의 에너지가 건전하게 발산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성적인 비행이 더 많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TV의 애정물이나 애정만화 등을 보면서 엉뚱한 공상에 시달리기보다는 밖에서 달리기나 줄넘기라도 하는 활발한 시간을 갖도록 부모들이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밤이고 낮이고 없이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고 비행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전하게 발산되지 못한 에너지들이 전파매체나 인쇄매체 등의 자극을 통해 더 크고 놀랄만한 비행을 꿈꾸게 할 수도 있다. 꼭 휴일이 아니더라도 자녀와 산보라도 하는 여

유있는 시간, 베드민턴 공이라도 주고 받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면 어떨까? 혹시 자녀가 외출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앞장세워 나서보면 그들의 꿈도 알 수 있고 그들의 왕성한 호기심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 눈앞에서 얌전히 있다고 해서 그들의 신진대사나 호기심, 성적 충동마저도 그렇게 얌전히 있으리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잊지 말자. 그들은 일생 중 가장 팔딱이는 심장을 가진 시기라는 것을!

오락실, 만화방, 디스코장은 청소년 비행의 온상인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의 하교시간이 이상해서 어머니가 3일간 아들의 하교길을 미행하였다. 그 아들은 집으로 오는 도중 전자 오락실로 들어가더니 한 시간 후에 나오더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들을 맞고 다음 날도 미행을 하였는데 역시 같은 오락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들 후에는 미행을 하지 않고 그 시간쯤 되어 오락실에 가 봤더니 아이는 전자오락에 취해 있었다.

3일을 참다가 다시 그 시간에 그 오락실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아들이가 탈선을 부리거나 전자오락실을 출입하느라 손버릇이 나빠진 것은 아닌데 이 어머니의 고민은 아들의 오락실 출입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와, 밝힌 후에 통제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였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심지어 국민학생에까지 확대된 아이들의 오락실 출입은 새삼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학급에서 90% 이상이 거의 정기적으로 오락실을 출입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오락실 출입에 대하여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 애들의 문제는 다만 오락실 출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따름이다.

실제로 오락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절도나 강도 혹은 동료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만 부모님들은 99명의 학생이 오락실을 출입한다고 해도 나의 자녀는 나머지 1명인 예외에 속할 것이라는 소망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당황하게 된다.

전자오락실은 놀이 자체가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투기성마저 띠고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놀이 문화가 되지 못한다. 더구나 그 비용 충당을 위한 제 2의 위험부담 뿐 아니라 그 곳에서 접하게 될 다른 친구들 (불량 청소년이나 비행의 경향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있어 그 출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쯤,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놀이가 주는 긍정적

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찾아보는 방법은 권할만 하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독립하려는 심리가 강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더 강하게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지켜보고만 있다가 하루쯤은 동행해서 자신이 부모로부터 아직은 보호 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부모와 함께 놀이에 참여해서 이해받는다는 마음을 갖게 해 줘도 좋을 것이다.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거나 미끄럼틀, 시소 등을 타는 것을 지켜 보면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동참해 주었듯이, 그 횟수는 줄었지만 부모가 사춘기 자녀와도 가끔씩 동참하는 놀이의 시간을 갖는다면 부모도 안심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놀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고 싶어하는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디스코장, 전자오락실 등은 아이들이 이미 비행의 경험이 있어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시작된 발걸음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비행집단에 휩쓸리게 되거나 비행에 가담하게 되고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 버린 경우가 많다.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여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 지금 변해버린 제 모습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학생 소녀예요. 성적은 하위권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 모양이라면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전 선천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소릴 많이 듣기도 했고 실제로 작년엔 학급에서 3등 정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배짱인지 뭔지, 될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던질 수 있

는 청소년 자살이에요. 전 언제부터가 나쁜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내 남자친구까지 빼앗아가고 날 이렇게 만든 것도 다 그에 맞이라고 하지만 이제 소용없는 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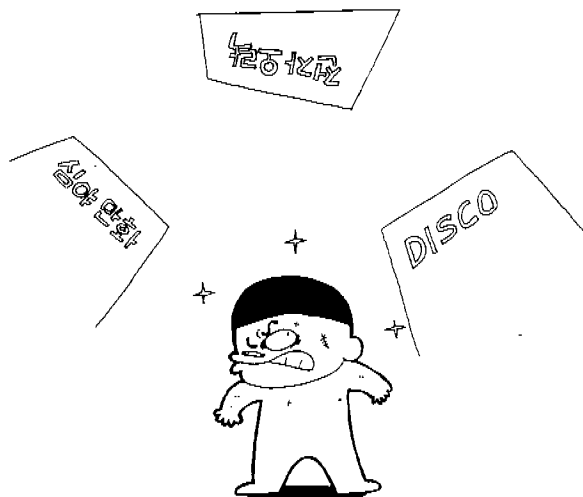
그때 덕분에 전 롤러스케이트장 출입을 하게 되었고 속어도 알게 되었어요. 맥주 맛도 좀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담배도 피웠어요. 머리에 무스도 바르게 되었고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디스코장도 가고 공부는 멀리 하고 놀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꼬마애들을 붙잡아 놓고 돈을 뺏을 때는 내가 더 신나서 더 강패같이 행동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앞에서도 좀 반항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일부터 속어를 유창하게 늘어놓고 껌을 씹을 때에도 소리나도록 씹었어요. 수면제도 사 보고 칼로 동맥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차마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순 없었어요.

일부러 엄마 아빠에게 고통을 주려고 반항만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전화질만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고통을 당하는 건 저였어요. 엄마 아빠 내게 심한 매질을 했고, 난 오기로도 잘못을 빌 수 없었어요. 그 매를 전부 맞아가며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쳤죠.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러면 부모들은 금세 태도가 바뀐다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모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가 버리라고 했어요. 맞고, 반항하고 뛰쳐 나갔다가 되돌아 오고 그러면서 차츰 공부에 흥미가 없어지고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성적은 더 나빠지고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충돌만 심해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장소는 디스코장밖에 없었어요. 거기선 아무도 내 이름을 알리고 하지 않고 내가 학생인 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대로 흔들고 마음대로 소리쳐도 괜찮아요. 학교와 공부가 싫어지고 친구도 싫어지고 살기도 싫어지면 그 곳엘 가죠. 그러나 집에 오면 다시 반복되는 갈등, 공부, 대학, 제 마음 속을 휘젓고 있는 생각을 모르시는 엄마는 대학만 강요할 뿐이에요. 미칠 것만 같더군요.”

비단 디스코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이 주는 익명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탈 행위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도 디스코장을 출입하거나 롤러스케이트장을 출입하는 애들을 ‘날나리’나 ‘노는 애’나 ‘이미 버린아이’나 하는 말로 부르고 있을 정도이다.

“여자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일 큰 고민은 제가 나쁜 길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예요. 오락실에 다니고,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고 1학년인데도 미팅이나 하러 다니고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오락실도 모르고 노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엔 노는 것만 알고 놀기만 해요. 공부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의자가 바늘 방석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는데 웃음소



리도 달라졌대요. 웃음소리며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예전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갖는 놀이에 대한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며 소중한 것이다. 다만 우리의 교육현실과 문화공간, 가정교육이 그것을 키워주고 인정해 줄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무조건 그것을 누르고 무시하다 보니 음성적으로 성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기는 놀이에 관계된 습관, 버릇 태도를 배우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여러가지 취미나 유흥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듯이 청소년 역시 정당한 놀이를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르고만 있다면 그 열은 마침내 엄청난 파괴를 불러 일으키고 만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은 학교 뿐이다. 그러나 학교는 놀이기능을 잃은지 이미 오래이다. 오히려 학교나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놀리지 않고 보다 많은 학습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일주일에 두 시간으로 규정된 클럽활동 시간마저도 입시도구과목의 보충학습시간으로 둔갑되고 예능 시간도 학년이 높아가면서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이 시간을 주고 놀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시합 한번 못하고 조심스럽게 밟고 지나다니기만 하다가 졸업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의 유혹에 못이겨 한번 따라가 본 디스코장의 분위기는 별천지일 수밖에 없다.

“어찌다가 아이들과 재미삼아 놀러간 디스코장에 이젠 발을 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책속에 파묻혀도 보고 혼자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까닭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 발을 끊는다면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껴 절 가만 놔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처럼 어찌다 한 번 함께 따라갔다가 발목을 붙잡힌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디스코장 내에서의 즉석 미팅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거나 여학생의 경우 성폭행을 당할 위험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번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발걸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차라리 중고등학교 시절엔 한 번도 가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만하다.

청소년을 겨냥한 만화방의 경우, 그 기능이 단순한 만화책 대여에 그치지 않고 성인만화를 아이들에게 대여해 주는가 하면 그곳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 밤이면 음란 비디오까지 상영하고 있다.

디스코장이든 만화방이든 그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용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여야 되는 이중의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용돈의 씀씀이가 해퍼졌다거나 복장이나 머리모양의 변화가 잦을 때면 학교후의 시간이나 독서실이나 학원에 가겠다고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디스코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출입하게 되면 본인의 이성친구가 없어도 친구들을 통해 소개받게 되고 이성과 어울려 음주 흡

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른 비행(절도, 상해, 공갈협박)에 비해 매우 가볍게 취급될 수도 있으나 규범을 지키는 의식이나 감정을 희박하게 하여 조심성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

인간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특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드러내기를 잘한다. 가위 쓰는 법을 처음 배운 아이가 하루종일 가위를 장난감으로 삼는 것처럼…… 디스코장 등에서 한두 번 담배를 피워보고 술을 마셔본 아이들이 의외로 쉽게 하루에 담배를 한 두갑씩 피우는 꼴초로 변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담배나 술이 마치 자신을 어른으로 승격시켜주는 도구나 되는 것처럼 인식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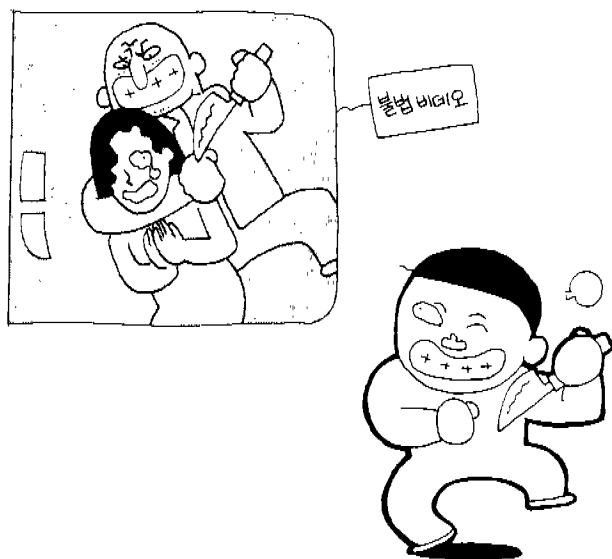
한두 번의 디스코장 출입이나 만화방 출입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항상 위험수위로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데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담배나 술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외에 그 행동이 대체로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모르는 즐거움을 그룹으로 즐기으로써 일반 사회에 반항하는 한편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단절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반항과 단절을 결속의 기반으로 한 비형식적인 그룹에의 귀속의 확인과 아울러 사회적 금기사항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파기했다는 데서 맛보는 죄의식의 경감 등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혼자서도 담배나 술을 즐기고 있다면 이미 그 방면에서는 어느 정도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 디스코장 같은 곳이나 여름방학 놀이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잘못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도 부모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아이들로 하여금 큰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되 그 안에서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불법 · 저질 비디오 우리 자녀를 망친다



며칠 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 전 서울의 어느 고급 아파트에서 적령기에도 훨씬 못 미친 소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녀들의 임신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은 현재 태에서 그게 뭐 놀라운 일이나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아기 아빠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그 소녀의 이종 오빠였다면 아

무래도 혀를 꼴꼴 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내용인즉 이러하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인 김군의 집 안엔 일찍부터 일제 VTR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뭔가 재미있는 걸 본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걸 늘 궁금히 생각하던 김군은 얼마만에 어른들이 숨겨둔 그 ‘재미있는 필름’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여 지금껏 몰래 훑쳐 보아오곤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일요일, 부모님들이 집을 비우자 김군은 예의 그 음란 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 그 때 마침 사촌 여동생이 집을 찾아 왔었다는 것이다. 김군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그 도색 필름에서 하는 대로 실제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끝내는 어린 소녀가 임신까지 - 더구나 이종사촌 오빠의 아이를 - 하게 되는 불상사를 낳았다는 이야기이다.

만화가게에서 보여주는 음란 비디오를 보다가 충동을 이기지 못한 한 고등학생(17세)이 만화가게 여주인(28세)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다가 극기야 그 여주인의 남편을 칼로 찌른 사건을 일으킨 예도 있다.

“비디오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몇 번 봤어요. 이상한 내용의 비디오도 많구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봐야 말발이 서죠.”

서울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태연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이 단속한 바에 의하면 이같은 음란 비디오는 이제 안방 깊숙히서 숨어서 보는, 부부만의 은밀한 것이 아닌 공공연한 오락물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디서건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아 상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즉 아이들이 주로 찾는 만화가게나 심야다방, 그리고 일반가정에까지 밀실을 차려놓고 이러한 음란 비디오를 상영하는데 그 대상층은 10대가 대부분이라는 사

실이다.

대도시의 번두리 지역에 부쩍 늘어난 소극장도 여기에 한 몫을 한다. 관객들의 80~90%가 10대 청소년인 이들 극장에서는 영화 외에 휴게실에 대형 TV를 설치해놓고 성인용 비디오를 보여주는 등으로 10대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극장 입구에는 ‘미성년자 입장 불가’라는 뜻말이 있지만 관객의 대부분은 10대이며 이들을 제지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애정물이나 폭력물이 주류를 이루는 영화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간을 이용, 디스코음악이 진동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10여 명이 때를 지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관람실 바로 옆 휴게실엔 대형비디오가 설치돼 있고 그 앞에 1백여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요즘 소극장에선 본 영화보다 이 비디오가 더 인기이다. 그래서 극장측에서는 매표구에 아예 ‘오늘의 비디오 상영 프로’를 써 붙이기도 하는 판국이다. 10대 청소년 1백여명이 너도나도 담배를 끄나물고 낮뜨거운 성인용 음란 비디오에 열중하는 속에서 중학교 3학년인 한 남학생은 “입장료 2천 원만 내면 하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일주일에 서너 번 온다”며 “학교에 땡땡이를 치고 오전부터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한다.

“분위기가 너무 난잡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단속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털어놓는 고등학생도 있다.

심지어 가정용 비디오세트에 확대 스크린을 붙여 마치 영화관 처럼 차린 비디오 소극장도 법의 맹점을 뚫고 성업중인 형편이다. 역시 10대 관객이 물리는 이 비디오 소극장에서 어떤 필름을 돌릴지는 뻔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 흘러다니는 이같은 도색포르노 필름들은 대부분이

미8군이나 해외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서구의 무분별한 섹스 문명이 아무런 여과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제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충격에 마비되어 향락추구에 빠져들으로써 건잡을 수 없는 퇴폐와 범죄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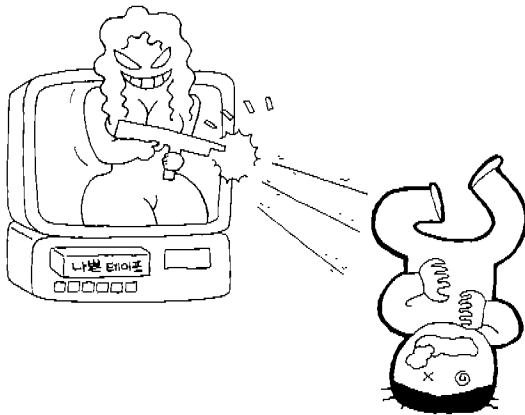
“남자친구 9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죽어서라도 복수를 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성폭행은 갈수록 집단화, 저연령화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남자친구, 이웃, 경찰, 버스·택시기사 등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변 인물들이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즉흥적,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는 보복, 인신매매,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불어다니다기도 하여 우리 사회가 극도로 병들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범죄를 저지른 한 중학생이 외설만화와 비디오를 본 뒤 직접 실천해 보고 싶었다고 고백한 것은 우리 사회의 퇴폐, 향락문화가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일간신문 사설 중 일부이다. 이 같은 성범죄의 급증 상태는 불법·저질 비디오가 안겨준 병리현상 중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음란 비디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홍콩액션 비디오물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음란 비디오테이프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 가까이에 두지 않고 있으나, 폭력물들은 아이들과 함께 보기도 하여 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가 활동사진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듯이 원래 영화는 ‘액션’의 매력이 본질적인 요소로 출발한다고 한다. 또한 영상 등의 폭력물이 대리충족을 통해 개인의 욕구불만과 좌절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정화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공격행동을 더욱 증가·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간은 타인의 폭력장면을 보고 그 기술과 방법을 새로이 배우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거나 모범으로 삼는 강력한 인물의 공격행동은 더욱 잘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잔인한 폭력장면이 담긴 비디오물이 특히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평화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증동, 유발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홍콩 액션 비디오물은 주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는 별 고려 없이 범죄조직 속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의리를 지킨다는, 혹은 악을 응징한다는 명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무의미한 폭력과 잔혹한 살상을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비디오 물에서 보여지는 범죄의 60% 이상이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약 관련사범의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낳게 한다. 비디오물을 통해 마약에 관한 정보가 계속 제공됨으로써 청소년들이 마약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위조지폐 제조, 청부살인, 인신매매, 위조여권 제작, 무기밀매, 도굴, 도박, 강간, 사기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묘사되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범법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반복시청에 따른 누적 효과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또한 범죄조직의 배후에 경관이 있음을 암시 한다면가 경찰관이 전화를 통해 마약범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 장면 예시는 경찰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까 아울러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홍콩 액션 비디오물의 대부분은 특별한 주제나 내용이 없이 단지 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짜맞추기식의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암흑가의 범죄집단간의 대결이거나 범죄조직(대부분 마약밀매나 위조지폐와 관련된 조직적인 범죄집단)과 경찰 사이에서 일어나는 추적과 대결을 줄거리로 한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이야기의 줄거리는 되도록 잔인하게 하고 잔인하고 처절한 싸움장면의 지속적인 연결이 이들 영화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의 반복시청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서순화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영웅본색’ 시리즈와 ‘마담’ 시리즈의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폭력장면의 횟수와 시간이 늘어 ‘에스마담 2편’은 폭력장면이 무려 40분이나 된다.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대량학살의 장면이 예사로 느껴질 정도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인명의 살상이 어디서나, 아무렇지 않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보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부지불식간에 폭력이 일상사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스포츠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비디오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아무 것이든 손에 잡히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잔인하고 충격적인 장면에는 총, 칼, 수류탄, 각목, 쇠파이프, 도끼, 망치, 깨진 병 등의 일반적인 무기는 물론이고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후라이팬, 접시, 자동차, 의자 등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총동원된다. 이러한 점들이 모방성과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학습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지는 않을까?

폭력 행사 방법과 폭력 사용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충격적이고 잔혹한 폭력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그 해악이 우려된다. ‘사과를 입에 물리고 입에다 총을 쏘는’ 장면, ‘격투시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는’ 장면, ‘쏟아진 총알이 가슴에서 등을 뚫고 튀어나가는’ 장면, ‘쓰러질 때까지 기다란 칼로 찔려서 사람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죽이는’ 장면 등이 그대로 안방으로 침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주인공을 통해 전달되는 왜곡된 가치관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

한 자아확립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주인공은 친구의 우정과 의리를 위해, 혹은 사회정의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반면 악한들은 이상심리와 파괴적 심리의 소유자들로, 주인공은 이들을 처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폭력이 합리화 내지 정당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폭력을 묵인하거나 현사회에서 이를 재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인공의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외형적인 모습이 인간의 가치평가 기준의 척도가 되게 할 우려도 그냥 넘길 수 없다. 홍콩 액션 비디오물의 특징의 하나는 우리 청소년층에도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주윤발, 장국영, 왕조현 등 주연급 배우들의 모습을 — 이들의 사진으로 온통 공부방의 벽을 장식한 경우를 못 보았는지? — 잦은 얼굴 클로즈업과 슬로우모션을 통해 끊임없이 부각시킴으로써 강한 인상을 남기고자 애쓰는 점이다. 작품의 내용성과 관계없이 주인공의 외모를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간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외모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좋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위험스러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홍콩액션물이 청소년이 선호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중 단연 1위를 차지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한다. YMCA가 서울의 남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디오 시청실태를 보면 청소년들의 월평균 비디오 시청 편수는 약 3편으로 나타났는데 한 달에 한 편도 안 본다는 학생은 조사자 중 18.7% 정도이고 10편 이상 본다는 학생도 6%나 된다.

비디오 시청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재미있어서

(54.2%), 기분전환을 위해(26.3%), 시간을 보내기 위해(4.2%) 등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위주의 시청욕구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정보추구(2%), 대화촉진(1.3%) 등 비교적 이성적인 시청욕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 청소년의 비디오 시청은 다분히 현실도피나 스트레스 해소 또는 오락추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제도와 내용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결과로, 맹목적 성적위주의 교육관행이 빚어낸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즉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가까이 놓여져 있는 비디오 시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비디오 내용물의 건전성과 교육성, 윤리성 등의 중요함이 강조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비디오 시청장소는 자기집(46.3%), 친구집(28.7%), 친척집(10.1%), 만화가게(2.6%)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시청경향을 읽을 수 있다. 흔히 청소년의 비디오 접촉에 관한 문제가 만화가게 등에서 시청하는 불법·음란비디오에만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관점에서는 다소 의아스러운 결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늘의 비디오 문제는 몇몇 소수의 비행 청소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가정 안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대부분 청소년의 문제임을 암시하는 결과인 셈이다.

성인용 비디오의 시청 경험에 대해서도 1~2편이 33.3%, 3~4편이 9.8%로 나타났으며 10편 이상을 보았다는 청소년도 7.9%나 되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1편 이상의 성인용 음란 비디오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용 비디오를 처음 시청한 시기는 중3(15%), 중2(14%), 중1(8.1%) 등이 많았는데 국민학생때 접촉했다는 경우도 8.2%나

되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이 성인용 비디오의 시청동기 가운데 집에 테이프가 있어서 시청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12.5%에 이르러 가정에서의 테이프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비디오 시청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로 흡수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불법 음란 비디오의 퇴치차원에만 머무르던 비디오 문제를 가정에서의 비디오 이용을 위한 건전화 방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비디오 시청이유가 주로 오락추구, 여가활용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오락제공 차원의 비디오 품질향상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오락을 위한 대안 마련에 보다 힘을 쏟아야겠다. 방학, 방과 후, 주말, 공휴일 등 여가시간에 비디오 시청에 몰입하는 청소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놀이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의 비디오 시청을 무조건 금지하는 부모보다는 (4.2%), 선별적으로 허용하거나(70%), 무조건 허용하는 (10.3%) 부모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 결과로 보아 이제 부모님들의 비디오 문화에 대한 선별능력, 감상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전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음란 비디오의 퇴치에 대한 문제는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사회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문화물 단속이라는 차원보다, 어떤 무서운 신종 전염병을 퇴치, 예방한다는 측면이나 아주 유해한 부정식품을 없앤다는 것과 버금가는 대응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불량불법 비디오의 복제,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폭력이나 성적 충동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 TV극 등의 매체들도 지금보다 엄격한 심의기준에 따라 철저히 심의 검토되는 여과과정을 거쳐 사회에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학교주변의 상인을 지도·계몽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자각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당국의 단호한 결의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인 것 같다.

“비디오 가게에 가면 보고자 하는 것은 없고 성인용 비디오만 있는 것이 불만입니다. 성인영화를 없앴으면 해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건전한 내용의 비디오가 많이 나왔으면 해요. 좋은 내용이라도 비디오 하면 왠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어른들에게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성인용 비디오를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비디오 가게에서 테이프를 빌리는데 주인이 음란 비디오를 권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은 학생들한테 정말 좋지 않은데 말예요.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이 시중에 많지 않고, 그 중 특히 과학프로그램이 극히 적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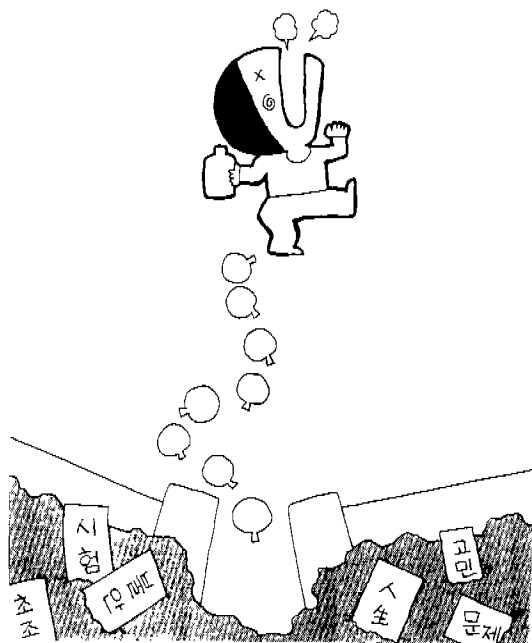
“비디오 종류에 따라 대여점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성인용은 성인용대로 교육용은 교육용대로.”

“음란 비디오를 국가적 차원에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KBS와 MBC에서 기록물로 제작된 비디오테이프를 팔지만 말고 일반 비디오 테이프처럼 대여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비디오 프로가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법 비디오가 판치는 것 아닐까요?”

환각제와 약물을 찾는 십대



“진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지금까지 별 걱정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나쁜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며 고고장도 다니고 하다가 성적이 나빠 학교를 못 다닐 뻔도 했는데 아버지가 힘쓰신 관계로 겨우 학교는 들어 갔습니다. 난 솔직히 말해서 콜초에다가 반에서는 싸움대장, 술 먹는 거라면 반에서는 제일가는 아이입니다. 담배를 하루에 보통 한갑

반을 안 피면 몸이 뒤틀릴 정도니까요. 주로 학교 화장실에서 피우고 어떤때는 교실에서도 피웁니다.

그러나 제 고민은 이것 뿐만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본드를 입에 댔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환각제를 입에 댔고 요즘엔 대마초까지도 입에 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벗어날 수 없냐구요? 제가 그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대로 폐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고3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때 친구가 어젯밤 약을 먹고 밤새 공부했다면서 제게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약을 먹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분홍색 알약이었습니다. 우린 그날 밤 친구랑 그 약을 나누어 먹고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이튿날, 생각보다 기분이 좋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날부터 중간고사 끝나는 4일 동안 우린 함께 약을 먹고 공부했습니다. 그후로도 숙제가 많거나 시험이 있는 날은 약을 사먹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제가 잠 안오는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지는 모르십니다. 처음엔 한 알만 먹어도 정신이 맑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다섯 알 여섯 알을 먹어도 잠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먹고나서 한 시간 정도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으면서 머리가 빙 도는 것도 같고 텅 빈 것도 같습니다. 연습장에다 글씨를 써도 손에 기운이 없어서 공부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이번엔 안 먹어야지 하고 다짐해도 밤이 되면 약을 먹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꼭 빠뜨린 것같이 정신집중이 안됩니다. 약을 먹어야 안심을 하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고3인 지금은 커피와 타이밍이 제겐 밤참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다가 제가 이상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시험이 끝나면 끊어야지 하는 마음이 대학시험까지 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도 잠자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각성제에 중독된 것일까요.”

“키가 1m 59cm에 67kg의 몸매를 가진 여고생입니다. 모두들 저를 보면 비웃는 듯한 눈길로 쳐다봅니다. 제가 보아도 너무 뚱뚱한 제 모습이 싫습니다. 아니, 전 제자신이 미워서 거울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살 빼는 약이라도 있다면 먹고 싶다는 저에게 ‘살 빠지는 특효약, 일주일에 4kg 감량’ 이런 문구는 정말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살 빠지는 약을 사달라고 했다가 소리만 듣고 두달 용돈을 모아서 용기를 내서 그 약을 샀습니다. 췌슐형의 약 2주일 분량을 사는데 제 용돈 두달치가 다 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전 기뻐했습니다. 이주일 후 5kg만 빠진다고 해도 날아갈 것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주일이 지난 지금 제 몸은 그대로입니다. 약을 먹었더니 처음 며칠간은 음식을 봐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밤에 더 많은 것을 먹게 됩니다. 제 용돈으로 다시 약을 사려면 두 달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6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전 6개월 아니 1년이라도 먹고 싶지만 약값이 제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약물남용이란 여태껏 전문가들에게서 오고갔던 말이지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쓰였던 말은 아니다. 그러나 1, 2년 사이에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고나 죽음 혹은 본드나 환각제 흡입상태에서 벌어지는 잇단 범죄가 발생하면서 약물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닌 우리들의 일이 되고 말았다.

앞의 사례에서 드러난 여고생처럼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는 암전한 딸애가 각성제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 하면, 피부병을 치료하라고 사다 준 약 (DDS)을 한 달 정도 복용하던 여고생이 복습을

있는 경우도 있었다(조선일보 90. 6.6).

이렇듯 우리의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환각제와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거기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약물남용이나 오용이 일부 비행청소년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평범한 아이 모두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물 남용이란 무엇일까.

약물남용이란 약국 등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진통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을 치료가 아닌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비의학적인 목적이란 의학적인 목적 없이 감정세계에만 영향을 끼쳐 단지 행복감, 도취감, 흥분감 등을 얻으려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수치심을 없애려고 부탄가스를 마시는 불량청소년이나, 잠을 쫓기 위해서 각성제를 사용하는 입시생 모두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이용되고 있는 본드나 신나같은 것은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용돈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본드나 신나들을 흡입해 환각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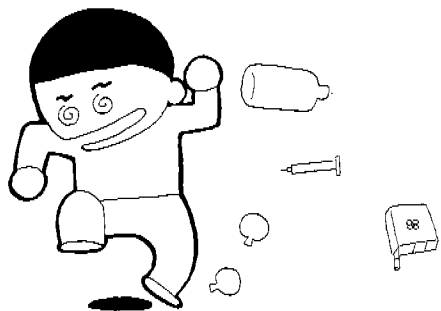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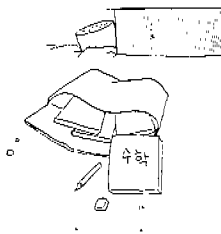
이들은 모두 처음엔 일시적인 흥분에 만족하던 것이 점차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면서 해로운 약품의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또한 일단 중독되고 나면 여러가지 이상 행동이나 범죄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필로폰이나 마약류 사범 수형자 중 90% 이상이 20대 미만일 때 최초로 마약과 접하게 되었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기에 접하는 약물남용은 계속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질 뿐 아니라 더 강한 약물을 원하게 된다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어떤 동기로 약물에 접하게 될까?

Millman과 Khuri는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권태, 호기심, 쾌락추구, 소외감, 절망감 그리고 친구들의 권유가 가장 흔한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개개인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단지 권태로움을 극복하려고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친구나 선후배의 경험담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녀가 본드를 흡입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친구들로부터 자녀를 떼어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노력만으로 친구들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면 부모가 함께 노력하여 이사를 하는 방법까지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본드를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대개 자기집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가 관심있게 관찰만 한다면 자기의 자녀가 본드를 흡입하고 있을 경우 본드가 묻은 비닐봉지가 쓰레기통 속에 있다거나 아이의 책상 서랍 속에 본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함께 치료의 길을 찾아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또 하나의 동기 가운데서 무시할 수 없는 동기가 부모의 영향이다.

부모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비현실적인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강요할 때 그 목표를 성취할 능력이 없어 부모의 높은 기대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는 많은 청소년들은 그 실패감과 절망감을 씻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가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할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자립시키지 못한 채 부모에게만 의존하게 하는 과잉보호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이 약물이나 환각제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약물복용을 통해서 평소 억압 받고 있었던 모험이나 탈출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충동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습관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도피하고 방임하려는 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는 약물을 찾는 자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친구의 영향보다 강

한 것은 아니지만 알콜 의존도가 높은 부모 밑에서는 약물 의존도가 높은 자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에는 현실세계의 모든 것을 초월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 현실을 뛰어 넘어 이상의 세계로 들어서고 싶은 열망이 강렬하지만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다고 느낄 때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환각 속에서만나 황홀한 도취경을 경험하려 하고 그 약물에 계속 의존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몇 가지 동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약물을 찾는 심리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든 현실에 대한 반항심이나 도피심리 때문이든 개인적으로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생들이 돈 8,000원을 빼앗고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을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 역시 본드를 3~4시간 동안 흡입한 몽롱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였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초조해 한다거나 우울해 할 때 혹은 행동이 느리고 말을 더듬을 때,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줄 때, 성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친구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귀는 친구가 자주 바뀔 때는 일단 약물이나 환각제 사용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돈에 대해서 비밀이 많아지거나 집안에서 귀찮품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일단 자세히 관찰해 봐야 할 것이다.

너구나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소극적이고 위축된 성격으로 변한다거나 평소엔 용모에 관심이 많던 아이가 용모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구취나 체취가 심해도 무관심 해진 경우에는 일단 약물 사용이나 본드 흡입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약물 사용의 유혹에 접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성적인 방종이나 약물 사용까지도 친구들과 일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친구들이 모두 호기심으로 술 담배를 하고 약물을 복용하는데 자신만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난 괜찮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가 평소부터 자녀에게 약물의 유혹에 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무척 가치있는 일이며 용기있는 일이라고 알려주면 자녀들이 약물의 유혹에 접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청소년기는 감정이 매우 복잡미묘한 시기이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반면 나는 다른 애들과 다르니까 어떠한 위험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잠재되어 있으므로 기회를 만나면 약물을 시험해 보고 사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고 모험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처에 널려있는 환각제의 유혹으로부터 나의 자녀들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환각제나 약물남용은 그 문제가 매우 특수하고 심각한 경우지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의 요구사항만 많은 일방적인 대화로는 그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알 수가 없다. 자녀들이 느끼고 부딪치는 작은 문제라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중독성 있는 음식 즉

콜라나 커피 등을 아무렇지 않게 과용하는 것은 자녀들을 아무런 생각없이 그런 중독성있는 제품속에 방치해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은 감기기운에도 감기약을 즉각 조제해서 먹이는 습관도 약물의 유혹에 약한 자녀로 만들 수 있다. 때론 두 세살 아이에게 부모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매우 위험한 생활습관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먹을 것 하나에도 먹어도 되는 것과 어느 순간까지는 먹을 수 없는 것, 인내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참게 하는 생활 태도를 길러 줘야 할 것이다. 부모 역시 앞서 참아야 할 것은 끝까지 참는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본을 보이는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심각한 청소년 폭력



얼마 전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한 시간에 걸쳐 발생한 “10대 청소년 집단 난동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던졌다. 10대 청소년 30여명이 쇠파이프, 칼, 손도끼, 각목 등의 흉기를 들고 때로 물려다니며 인근의 점포 50여개를 닥치는 대로 때려부순 것이다. 사흘 후 그들 대부분이 잡히며 행패를 부린 이유

가 밝혀졌다.

청소년 폭력조직인 ‘산이슬파’ 조직원 4명이 사건 전날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조직인 ‘진성파’ 10여명에게 몰매를 맞았다. 이튿날 ‘산이슬파’는 조직원 전원을 집합시켜 살살이 뒤졌지만 보복 대상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화김에 본때를 보여주려고 인근 상가를 쳤다는 것이다. 이들 양 조직은 활동무대가 인접해 있어 오래 전부터 알력이 심한 편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의 각 일간지와 방송국은 일제히 앞을 다투어 떠들썩하게 보도하였다. 이에 덧붙여 청소년들의 폭력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치안부재와 그 책임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 당사자인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노기를 띠며 분통을 터뜨렸다. 겁없이 덤비는 청소년들이 이처럼 날 뛰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루인들 마음놓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또한 서울시 경찰국은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 1년동안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집계한 분석 보고서인데 10대 청소년에 의해 발생한 범행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며 이들의 70%가 범행시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범죄사건의 배경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을 저지르도록 한 근본원인에 대하여 되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근본 문제마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은 법률적인 댓가로 한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테지만 그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진 과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왜 문제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런 식으로 했을까? 다른 좀 더 건전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앓고있는 고민과 불만을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다른 건전한 방식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우리 사회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포용할 만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일까?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이든 3월 초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철이 되면 학생들간의 폭력문제로 골치를 썩는다. 싸움은 2, 3학년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신입생인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심하게 발생한다. 새로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기죽지 않고 지내려는 심리가 한 요인이다. 낯선 급우들과 얼굴을 익히는 과정은 곧 싸움에서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는 과정이기도 하다.

누가 더 강한가. 이와 같은 힘에 대한 승상은 고등학교 시절을 맞이하여 그 절정기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시절 패거리를 이루어 나다닌 경험에 있는 소년들은 그에 대한 집착이 더욱 크다. 기죽고 지내느냐 아니냐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학급은 물론 자기 학년 전체를 통해 손가락으로 꼽는 강자로 군림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다툼은 입학 초기 단독으로 치뤄지다가 서서히 패거리로 나뉘어지고, 패거리들간의 싸움도 봄철 소풍을 전후하여 대충 정리된다.

이즈음 2, 3학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폭력조직도 본격적으로 후배 포섭작전에 나선다. 그동안 점찍어 두었던 신입생을 따로 불러내어 자기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때 포섭 대상으로 지목된 신입생은 가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우물쭈물 늦추다 미움을 사게 되면 매일 이곳저곳으로 불러다니며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가입 권유를 받으면 거절하기가 힘들다. 가끔 용기를 내어 단호히 거절하는 신입생이 있으나 그는 며칠이 지나

지않아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는다. 이같은 몰매는 한 차례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더욱 견디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웬만큼 힘이 좋고 뚝심이 있는 신입생이라도 결국에는 선배들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마는 것이다.

학년말을 앞두고 학업을 포기, 무작정 상경해 한 국수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수군(가명·19세)은 상경전만 해도 읍내의 고교 1년 학생이었다. 김군의 가출은 순전히 교내 폭력 서클원들의 폐도 장소도 없는 주먹세례가 그 원인이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 2년간 휴학했던 김군은 학급 안에서 ‘행’으로 불렸다. 김군이 ‘X파’ 폭력서클에 점찍히게 된 이유는 상급생에게 존대말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지난 6월초, 밤늦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려나간 김군은 ‘X파’ 행동대장격인 최아무개군(18)등 7~8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해 오른쪽 송곳니가 부러지고 가슴이 결려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김군은 이튿날 오전수업만 받고 귀가했다. 집에서도 “머리가 아파 조퇴했다”고만 말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X파의 주먹세례에 견디다 못해 김군은 자위수단으로 친구 몇명을 모아 ‘고돌이’라는 서클을 만들고 3~4명씩 붙어다니기도 했지만 X파의 완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에 ㅂ중학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X파의 전갈을 받고 친구 7명과 함께 나갔다가 X파쪽에서 20여명이 흉기와 각목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맞서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출렁랑치던 김군은 X파에게 붙잡혀 집단폭행 당하고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김군은 “X파의 인원 동원 능력이 1백여명에까지 이르며 인근 학교의 주먹들과 손잡아 읍내 고교생 주먹세계를 통일, 학교와 경찰에서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마다 1~2개의 주먹서클이 있다는 사실은 고교생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회 조직폭력배의 아류격인 학내 폭력서클 조직원들은 평소에도 가방 속에 쌍절봉, 자전거 체인 등을 가지고 다니며 하급생들이나 힘없는 동급생들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심지어는 상급생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선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이 ‘겉없는 10대’라는 것이다.

대도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도시의 경우 등하교길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돈을 꿔달라’며 접근, 반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상대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는 통학로가 30.9%로 가장 많고, 학교주변 27.3%,



역·버스 정류장 22.4%, 만화가게·오락실 등이 19.4%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중·고생들의 등하교길은 공포의 길로 변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의 수법도 단돈 5백원을 빼앗으면서 흥기를 휘두르는 등 갈수록 난폭해지며 꽤거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꿈쩍없이 당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서울의 한 카페 옆 골목에서 8층 3년 이아무개군 등 2명을 고교 중퇴자, 재수생 등으로 구성된 폭력그룹 3명이 불러세워 과도로 위협, 현금 4만3천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책가방을 뒤져 만년필을 빼앗고 심지어 신발 2켤레 중 값비싼 A상표 운동화도 바꿔 신었다.

국민학교 뒷길에서 10대 3명에게 당한 안아무개군은 이들이 말없이 붙들고 근처 전주에 돌을 탁탁 찍으며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고 입고 있는 그 점퍼도 벗어라”고 위협하는 바람에 갖고 있던 2천원과 점퍼 셔츠, 운동화까지 벗어주었다.

이들 10대들은 이같은 학교주변 폭력이외에도 인근 주택가에서 절도, 강도 등 대담한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학생, 심지어 여자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까지 예사로 저지르기도 한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국민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국교생 추행·살인사건의 범인이 중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10대들의 성폭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빼앗겨도 좋은 비상금’ 3천원 씩을 별도로 준비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도시 거리에서 노상강도의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는 불행을 피하려면 뒷주머니에 항시 20달러짜리 지폐를 넣고 다녀야 한다는 웃지 못할 풍속도가 폭력문화와 함께 도입되어, 우리도

‘선진국형’을 닮아가는 것일까.

초고교 2년 한아무개군은 “중3때부터 일곱차례에 걸쳐 10여만 원이나 빼앗겼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며 “나처럼 속으로만 끔끔 앓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다 학생들이 사건을 학교나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피해학생들이 신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내에 설치해둔 신고함을 부수어버리기도 한다.

일선의 학교들은 다반사로 발생하는 학교주변 폭력범죄를 경찰의 치안력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학교측이 합동 순찰 근무반을 편성, 방과 후 학교 주변의 취약지구를 돌며 학생들을 귀가지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는데 고민이 있다.

이들 청소년 폭력의 특징은 집단성에 있다. 물론 성인범죄도 집단적인 경우가 없지 않지만 청소년 폭력은 심리적 특성으로하여 대부분 집단적이다. 특히 중·고교의 폭력서클은 일시위주 교육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학생들끼리 동질감을 확보,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물질주의와 퇴폐풍조에 쉽게 휩쓸리며 충동적으로 폭력화돼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쉽고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범죄동기도 유희비마련 등 2차적인 이유로 바뀌게 되면서 갈수록 청소년 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비겁자’라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폭력조직의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빠지면 비겁자가 된다는 인식이 그

들을 계속 범행에 묶어두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청소년 폭력의 집단화 경향은 더욱 흉폭한 행동을 낳을 뿐 아니라 범행을 하고도 동료들 사이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등 도덕성의 마비상태를 가져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 맑고 푸른 나이에 어두운 폭력세계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일까?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시기이다. 그래서 작은 것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확대시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예기치 않은 패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왜 찌려보느냐’ ‘태도가 건방지다’는 따위의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 칼부림까지 불고 오기 일쑤이다.

또한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데 서투른 10대들은 폭력 비디오나 만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익힌 공격성으로 탈선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경찰에 검거된 ‘스팽크스’라는 이름의 조직폭력 학생 9명은 20여차례에 걸쳐 주로 여중생들의 돈을 털고 성폭행을 일삼아 왔는데 이들은 “용돈은 학생들로부터 뺏고 여자를 폭행할 때에는 집단으로 한다”는 동의 행동강령까지 실천해왔다. 또 한 폭력조직인 ‘불가사리파’고교생 12명은 이사장,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행동대원 등 어른 폭력배의 회사조직을 모방했는데 행동강령이나 회사조직 등 폭력배 운영의 방법은 소극장이나 만화가게에서 본 영상물과 책을 통해 배운 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결국 소영웅주의를 위장한 폭력 비디오, 저질 폭력영화와 불량만화 등 빛나간 문화공간에서 배우는 공격성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대신 몇몇 어른들은 그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어른들의 책임은 그것만이 아니다. 청소년 폭력을 가장 크게 부채질하는 것은 아마도 어른들의 물질주의와 향락·퇴폐문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사회의 폭력성일 것이다. 거리에 넘치는 향락을 누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돈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청소년들의 의식 저변에는, 돈이면 최고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그릇된 가치관이 그대로 심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른들의 기존 폭력조직이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기업형으로 변신하면서 세력을 더 확장해가고 있는 것도 청소년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그뿐인가? 국회의원이 폭력배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조직폭력배와 어울려 술자리를 즐겼다는 신문보도는 청소년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최근 치안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국 6백여개의 폭력조직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나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서클이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사회 폭력조직의 인적 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대로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흡수돼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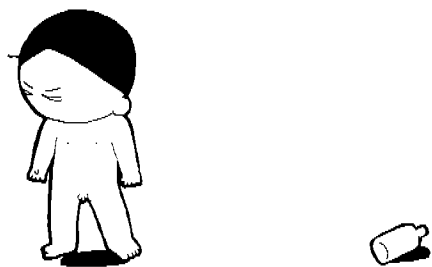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이는 현행 입시, 학력위주의 학교수업이 낳은 병폐”라며 “불량학생도 똑같은 내 자식, 내 제자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접근, 선도해가야 하는데 오늘의 학교현실이 그것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한다. 한 심리학 교수는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폭력을 유발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식전달 교육관, 입시위주 교육, 비교육적·비인간적 학교환경, 교사의 사기 저하, 생활지도 활동의 미흡, 대화기회의 결여 등의 요인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시위주 정책의 끝없이 계속되는 경쟁에서 실패한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소외감이 그들을 거칠게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학교측의 냉랭한 자세 또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가출해 15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교측에서는 형사문제가 될 만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부모에게 자퇴를 종용한다. 다소 말썽이 일더라도 빗나간 애들을 추스려 구제하기 보다는 학교의 위신과 다른 학부형들의 눈총을 더 중시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간 아이들이 정말로 탈선해버려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리라는 명목으로 충성을 다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대부분 그 조직의 행동대원으로서 패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앞장서는 풀마니 노릇을 하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들 앞에는 이제 더 이상 꿈을 가진 소년으로서의 앞날은 없는 것이다. 이 거친 세상에서 더 흥폭해지고 더 비정해진다. 그러면서 때로는 슬퍼한다. 한때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 일기장에 시를 적어놓기도 했던,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지난 날을 가슴아프게 돌이켜보면서……

10대 청소년들의 폭력이 무서워졌다고 한다. ‘공포의 인간황기’라고도 부른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한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흘리는 그늘진 눈물을……

저는 잘못 태어난 아이인가요



“엄마는 언니와 저와 동생을 차이를 두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반장이랍니다. 전 못 생기고 다른 것은 다 못하지만 그냥 공부만 잘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문제랍니다.

엄마는 저를 너무 편애하고 계세요. 제가 공부도 잘하고 반장이므로 언니와 동생은 막 대하셔도 저만은 감싸고 계세요. 언니나

동생과 싸울 때도 제 편만 드시니 고민이지요. 엄마에게 그건 잘 못하고 계신거라고 말씀드리기엔 전 용기가 없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편애가 언니나 동생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싫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무리 많은 자녀를 가졌다 해도 그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하면 누구라고 꼬집어 말하지 못한다. 모두가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열 손가락 깨들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옛 얘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애부터 막내까지, 그리고 똑똑한 애든 못난 애든 다 똑같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내리 사랑’이란 말도 쓰인다. 큰 애보다는 둘째애가, 둘째보다는 셋째가 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부모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얘기가 되풀이되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도 대상에 따라 그 강도가 바뀔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자식을 낳아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내리 사랑’이란 말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차별을 둔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식을 낳아 기르면 기를수록 처음엔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애뜻함, 감사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많아진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의 사랑을 저 깊이 감추인 속내에서 느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한 마디에서 모든 사랑을 다 저울질해서 수치로 기록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다.

저 깊은 곳에서는 아무리 똑같은 무게로 존재할지라도 밖으로 표현되는 사랑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주느냐가 중요하다.

마치 태풍이 부는 날이건 맑은 날이건 바닷 속 깊이는 고요하고 잔잔하게 같은 흐름을 유지하지만 바다 표면은 파도가 일기도 하고 잔 물결이 일기도 해서 그 변화가 무쌍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바닷 속 깊이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곁에서 출렁이는 물결의 높이가 마치 바다의 깊이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난 더 사랑받고 있다, 혹은 소외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는 식의 판단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천만 부당한 투정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출생을 의심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왜 부모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적게 쏟아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

“저희 엄마는 저를 억지로 상고에 보내서 지금은 집에서 식모로 부려먹고 있어요. 저에게는 고3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집안일을 하나도 안하면서 항상 저를 무시하고 ‘이 병신 어디 가서 죽어 버려라’하면서 저를 때립니다. 저는 어디서나 기 죽어 살아요. 엄마에게 주산학원 보내달라고 하면 ‘너 같은 애가 주산학원 가서 무엇을 배울려고 하니’ 하면서 동생들에게 너희들도 저 병신 닮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를 막 구박해요.”

“큰 언니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제 밑의 동생과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반에서 29등을 하고 동생은 6등을 하고 있어요. 큰 언니는 동수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난 괴상한 일을 벌려 놓고

관심을 끌었지만 큰 관심을 주진 않았어요. 무척 외롭고 쓸쓸했어요.”

“엄마는 제가 제동생이 잘못해서 조금 때려도 ‘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때리니’라고 말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먼저 손부터 올립니다. 내가 동생을 때리려고 하면 엄마는 막으면서 왜 나를 때리려고 할까요?”

“유독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늘 저에게만 꾸지람하시고 저만 나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라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반항심을 키워왔나 봅니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늘 저만 야단치시고 언니나 동생에겐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 때문에 손해만 보는 것같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편지 사례를 통해서 본 모든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아무리 똑같은 사랑을 준다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차별이 느껴진다. 부모의 사랑이 위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른 것을 똑같다고 하니 더욱 부모가 싫어진다. 열 손가락을 다 깨물면 물론 똑같이 아프지만 그 깨무는 빈도와 강도의 차가 있다는 것이 자녀들의 생각이다. 자꾸 깨물면 다른 손가락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사랑이라는 커다란 당위성, 절대 불변의 진리로 애길 해도 받아들이는 자녀는 순간순간 자신이 감지하는 느낌에 의존해서 부모를 판단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특히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가 떨어진다면, 외모가 못났다면,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거나 의지가 약한 경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많이 갖는다. 거기에서 부모님이 별 뜻없이 던지는 “똑같은 형제가 어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 하거나 “너는 왜 형만큼 못하느냐” “네 언니 좀 봐라” 등의 말들이 그들에겐 가슴의 못이 되어 박힌다.

그러므로 잘난 자식이 대견하고 예쁘더라도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결코 형제를 비교하여 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한 사람을 비하시켜선 안된다. 서로를 비교하게 되면 우월한 쪽은 형제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으로 형제를 무시하게 되고 비교당한 쪽은 부모님과 함께 비교된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약점이 있는 자녀일수록 형제들이 있는 곳에선 잘한 점을 들어 칭찬해줘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게 되고 형제간에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부모가 동생 앞에서 형을 나무라면 그 동생은 부모가 언제신 곳에서도 형을 그 정도밖에 인정해 주지 않게 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자신을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한다. ‘친구 눈에 비치는 나는 어느 정도인가? 부모 눈에 비치는 나는 어느 정도인가? 형제에게 나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자의식 위에 동생과 비교해서도 못한 놈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상처가 된다.

어떤 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과 비교하여 꾸중하는 경우도 있다. 그 비교의 대상은 가까운 형제에게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100% 실패이다.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문제나 시선을 그 자녀에게만 고정시켜야 한다. ‘누구처럼’ 변해라 ‘누구만큼’ 못하느냐? ‘누구보다’ 잘해라... 등등으로 ‘~처럼’ ‘~만큼’ ‘~보다’의 아이를 기르려고 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 반항과 미움만 키우게 될 뿐이다.

부모의 욕심으로는 아무리 다른 아이만큼 키우고 싶다 할지라도 항상 자녀에게 강조해야 할 것은 ‘~누구만큼’이 아닌 ‘너다운 모습’이어야 한다.

비교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에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는데서 오는 미움이나 적의가 있는 한 건전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잘하면 잘하는대로 다독거려 주고 못하면 못한대로 다독거리며 ‘남과 같은’이 아닌 ‘너다운’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야 부모 사랑이 차별 사랑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당연히 여겨져 온 아들과 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구별 역시 차별의 느낌을 많이 주는 요소이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집이란 곳이 싫어지더니 지금은 가족 모두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단계까지 와 버렸어요. 1남 3녀 중 막내인 저는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항상 차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인가보다는 생각으로 지내 왔습니다. 오빠는 항상 우리와 달랐습니다. 유치원 나오고 국민학교 다니면서 오빠는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서울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원도 기타, 태권도, 속독 등등 여러군데 보냈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언니들과 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보내면서 말입니다.

오빠는 공부도 못하는데 재수까지 시키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 아빠와 다투었는데 그때 전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격도 좋았구요. 그러나 아빠는 ‘여자가 대학가서 뭘하냐? 널 보낼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제가 괴로운 것은 아니예요. 그동안 오빠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변해 버렸어요. 오빠는 나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고 욕도 듣기 거부할 만큼 심하게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언제나 오빠 편이었습니다. 이런 오빠가 전 항상 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죽이고 싶었습니다. 가출을 하려고 해도 갈만한 곳이 없어서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가정에서 하루도 살기가 싫어요. 정말이지 다 죽이고만 싶어요.”

이 편지의 내용처럼 아들은 재수 삼수를 시켜서라도 대학엘 가야하고 딸은 실력이 좋아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게 한다. ‘시집이나 잘 가면 됐지’라는 말로 딸의 불만을 무마하기엔 그 정당성이 너무 초라하다. 남녀 구별을 떠나서 능력별로 대해주는 가정이라야만 진정한 평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가슴에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꺼내어 무게로 달아 본다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사랑은 다 같은 무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사랑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때론 얇아지기도 하고 두터워지기도 한다.

이 세상을 비치는 태양의 빛은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은 빛으로 쏟아져 내린다. 그러나 지상에서 일어나는 기온 변화로 구름이 있거나 비가 내리는 경우 위에서 쏟아지는 똑같은 빛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식물에 도달하는 햇빛은 굴절되기도 하고 때론 가려지기도 한다.

부모의 사랑도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 나만 소외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자녀에게는 나도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부모의 감춰진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큰 사랑이 의심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수정되어야 한다. 크고 소중한 것일수록 섬세하게 다루어지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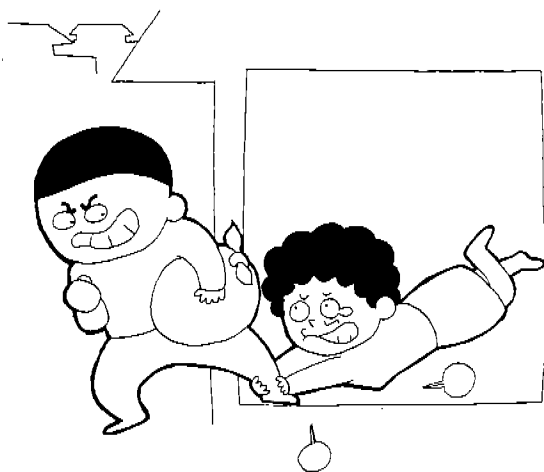
한 자리에서 두 자녀를 비교하지 않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자녀도 부모도 감정의 지배를 1차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을 넘어서 항상 잔잔한 마음으로 자녀 각자에게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달되는 느낌이며 그 느낌은 꾸미려고 해서 꾸며지는 것은 아니다.

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사랑이 다른 자녀에 대한 벽이 되어서도 안된다.

“네 언니는 저렇게 돌머리란다”라는 엄마의 말을 ‘공부도 못하는 언니가’라고 받는 동생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리다는 여고생은 그래도 우리 모든 가족을 사랑하려고 애쓰다며, 자신도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하였다.

한 사람의 풍요가 다른 한 사람의 빈곤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것은 분명 평등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같은 무게를 가진 부모 사랑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가출은 부모의 책임인가



남자 고등학생 3 명이 앉아서 부모 길들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한 명이 하는 말이다.

“야, 집에 이틀만 들어가지마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손이 발이 되게 빌 것이고 그 후론 만사 오케이야.”

한편으론 껄썸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을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버림으로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자녀의 생각과,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해 줄테니 일단 집에만 들어오라는 부모의 안달이 어우러져 가출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가출한 자녀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 온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다.

“아이가 집을 나가기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일도 없었어요. 우리 애는 가출할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전날 조금 야단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가출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대체로 아이의 가출 원인을 집에서나 부모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기 보다는 아이의 방랑벽 정도로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집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는 그 이유가 부모에게는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아이 자신에게는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혹은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이들 스스로도 가출이나 자살(아이들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자살보다는 전단계로 가출을 생각한다)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자신을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가출이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언제 가출에 대한 충동이나 유혹을

느낄까?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겪는 가족 충동을 살펴본다.

“저는 공부는 상위권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기대에는 늘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께서는 수학만 괜찮으면 무조건 다음에 더 잘하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성적표를 받으시고 웃음짓지는 못할 망정 또는 이번엔 괜찮다는 말씀도 없이, 다른 집 애들은 전교 1, 2등을 한다느니, 누구는 이번에 서울대 수석을 했다는 등의 말씀만 하시고, 늘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너는 그것을 못한다고 하세요.

그 조금이 얼마큼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그런 말씀이 절 자꾸 외롭게 하고 때론 너무나 속상하고 미칠 것 같아 제 손으로 제 목을 조른 적도 있어요.”

“정말 이러다간 제가 영영 머나먼 곳으로 떠나가 버릴 것만 같아요. 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절 집에만 뽕뽕 가두어 두고 키우려고 해요. 요즘에 와서는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조금만 나가면, 아니 옷만 갈아 입어도 어디 나갔려고 그러느냐면서 제 친구들이 나쁜 애들도 아닌데 못된 것들과 돌아다닌다고 악담을 합니다.

더구나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때는 그냥 있을 일도 절 그냥 두지 않고 시비를 걸고 제가 말 대꾸라도 하면 폭력을 휘둘러요. 닥치는대로 절 마구 때려요. 전 다음에 복수할 거예요. 제가 당한 만큼 말이에요. 단 1초도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엄마는 제가 돈만 달래서 가져갈 뿐이지 돈은 안 벌어서 오면서 잘도 쓴다고 늘 꾸중입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도 못할 바엔 아예 공장에나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말 때문에 난 공부가 머

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난 공부를 치우고 공장에 들어갈 생각도 했었고 집을 나가 방황하는 별이 될까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지난 과거의 고생 이야기를 하며 우리 4남매를 앉혀 놓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과거를 듣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기 싫습니다.

아버지 세대 때는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워서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데도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고 너희들은 너희 세대라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편한 줄 알아야 돼. 너희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주었나,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탔나, 다 내가 움직여야 가르쳐. 그냥 거저 배운 줄 아느냐’ 아버지의 이런 말이 크게 들려 온 때면 귀가 꼭 막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자상하고 좋은데 밤이면 술이 취해서 매일 싸웁니다. 저는 그 때마다 집을 뛰쳐 나가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 왔어요.”

이상에서 살펴 본 몇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녀들이 느끼는 가출 충동은 부모님 생각에 극히 사소한 작은 것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친구들과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용돈을 아껴서 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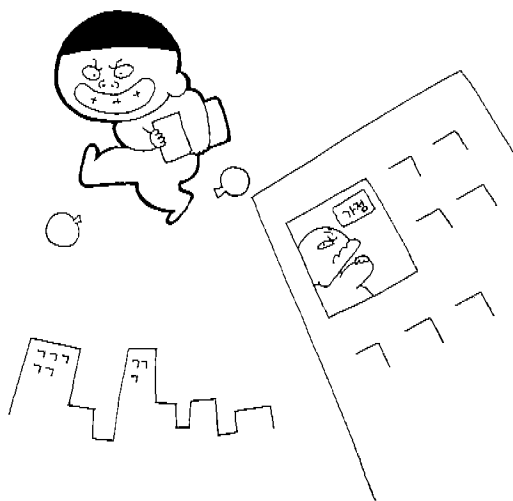
자식을 가진 부모, 그것도 자식의 성공만이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부모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할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당연한 말에 반기를 들고 집을 나선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간섭이나 책망이나 제지의 말도 없이 자녀들의 눈치나 살피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에 금방 몸을 뒤틀며 빠져 나가다가도 부모의 시선이 조금만 자신에게서 떨어졌다고 느끼면 금세 불안해 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불평을 한다.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면 간섭이 되고 자유를 주면 무관심이 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표현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

한 예를 들어 보자.

“개와 고양이가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 위해 개가 먼저 꼬리를 치켜들고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개와 고양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뛰야, 기분 나쁘다고 나에게 덤비겠다는 것 아니야’하면서 서로 몸을 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던 개와 고양이는 금세 서로를 노려보며 싸움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주고 받는 반가움 표현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의 이야기이다. 개가 반갑다고 흔들는 꼬리를 고양이는 싸우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고양이가 반갑다고 내리는 꼬리를 개는 싸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 싸움은 서로의 표현의 차에서 오는 당연한 싸움이다.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리지만 개는 싸우려고 달려들 때 꼬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부모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한 마디 하면 자녀는 그것을 자신을 묶는 오랏줄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하는 말의 순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무엇을 말할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지적할까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말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나의 아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본인이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독약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랑으로 한 말도 아이가 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나는 것이다.

자녀들이 또 집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은 부모의 부도덕한 외도나 잦은 싸움, 술주정 같은 부모의 책임없는 행동에서 일어난다.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밤 8시 경에 나가면 새벽 두 세시가 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거의 매일입니다. 농사에 바쁘시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둔보시지 않는 아버지도 미웠지만 소위 바람이란 걸 피우시는 엄마를 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빠는 돈이 목적이다. 돈이 있어야 너희들 대학도 보낼 것 아니냐고.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지요. 아빠는 딸 여자와 밤만 되면 자러 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전 아빠에게 한 번도 야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도 절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빠의 그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옛부터 칼로 물베기라 하여 화해하고 나면 상처가 남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부부당사자간에는 그럴지 몰라도 사춘기의 자녀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릴 때만 해도 소리지르고 욕하고 때리는 부모 옆에서 같이 울다가 싸움이 그치고 울음이 그치면 그 두려움도 가신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싸움이 그친 후 더 많은 혐오가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싸우는 집에 있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부싸움 후에는 당사자의 화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분명히 사과하고 이해시키는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싸움의 원인까지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 해도,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점, 이제 다 이해가 되었다는 점 등을 이해시

켜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부모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에 급급해 자녀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쉽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용서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아버지’로 보일 때 받는 상처는 배우자 못지 않게 크다.

배우자의 상처가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녀의 상처는 이성 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한 순간의 불장난이 자녀에겐 평생가는 상처를 남겨 주는 불똥이 될 수도 있다.

이젠 가출해서 돌아온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차례이다.

대개 가출해서 돌아온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부모가 먼저 수소문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와 본인이 스스로 돌아온 경우이다.

부모가 수소문해서 데려 온 경우든 자진해서 들어 온 경우든 소심한 부모는 또 나갈까봐 잘 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그간의 행적도 묻지 않고 그저 아이의 눈치만 본다.

그런가 하면 과격한 부모의 경우 다짜고짜 아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일방적인 훈계를 퍼부은 후에 이제는 알아들었겠지 하고 부모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아이를 감시하거나 혹은 놓아 준다.

둘 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가출에는 그것이 타의든 자의든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알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해 있는 동안 아이는 반성도 하고 마음도 새로워졌는데 가출의 원인이 되었던 가정은 변하지 않아서 제2의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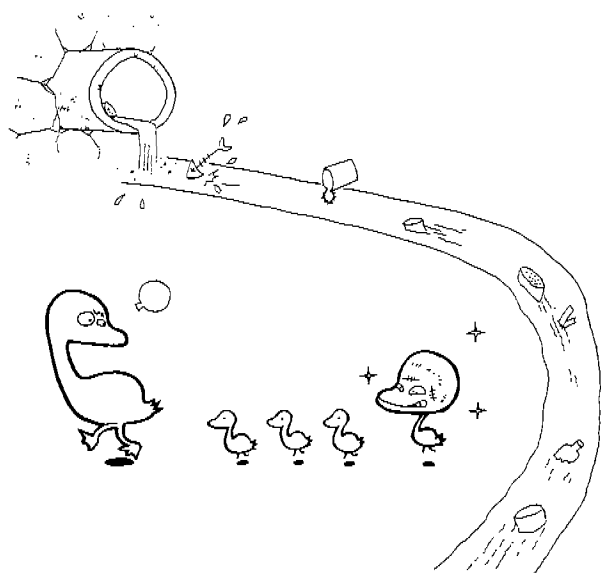
가출의 원인을 알고 해결이 되면 다음으로 가출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가출 자체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며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는 것을 얘기한 후에, 가출까지 몰고 갈 정도로 무관심했던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녀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가출한 경우라면, 그 문제를 이해시킨 후 해결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한 번 가출했다 돌아왔다고 해서 항상 눈치만 보거나 아예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가출을 부를 뿐이다.

가정은 부모의 사랑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자녀들의 그 곳에서의 탈출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원인이 부모의 영향과 책임에 있음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비 온 후에 땅이 더욱 굳듯이 가출한 후에는 가정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아 · 문제학생 · 문제사회



김영호(22세·남·가명)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훔친 것 때문에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기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이후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잡히게 되는데 실적을 올리려는 경찰관에 의해 죄명이 살인미수가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 일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5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그는 출옥 후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교도소에서 배운 범죄기술을 실천하는 길밖엔…… 유일하게 그를 따듯이 대해주었던 선배 조아무개군이 친구이며 범죄의 동반자였다. 그의 범죄경력은 4개월간 42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10대 4명 무차별 살해, 미장원 연쇄강도사건 등 강력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는 경찰에 의해 호송되면서 부모에게 “남아서 잘 기를 자신이 없다면 남지 않았어야 했다”는 말을 남기며 오열을 터뜨렸다(동아일보 3. 10).

이 지영(15세·여·가명), 부모님의 이혼과 연이은 재혼으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다. 고모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성적은 55명 중 50등 정도의 하위권이다. 교내 불량서를 멤버의 눈에 띄어 돈을 뺏기기도 하다가 결국은 그 서클의 일원이 되었다. 중1 때부터 학교에서 급하는 롤러스케이트장 출입, 흡연, 유흥장 출입, 후배 구타 등을 일삼기 시작했다. 동숭동 거리를 떼지어 다니다가 남학생들을 만나 혼숙한 것이 적발되어 퇴학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이아무개 특수절도로 감별소 송치, 박아무개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소년교도소에 가게 됨……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나의 아들, 나의 딸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아이들인가? 한때 밝은 눈빛과 순진한 미소를 지녔던 이들이 어째서 무엇때문에 문제아, 문제학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여 범죄의 길에 들어섰는가? 신문과 방송에서 실재 없이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비행, 그 중의 하나로 통계숫자를 더해주고 그 날의 머리기사를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모두가 눈물 많고 어리석기까지 한 이들, 평범한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기까지 어떤 길을 밟는가? 이 길은 누가 닦아놓은 길인가?

흔히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을 구분짓는 행위로는 음주, 흡연, 흡기소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유흥장 출입, 가출, 약물사용, 싸움, 불량교우, 남녀혼숙, 불량출판물을 갖거나 읽는 것 등에서부터 절도, 폭력, 강도,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며 어느 것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된 현상인 것도 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남학생은 “이상한 책을 읽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시험이 끝나는 날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일들은 흔한 일들이지요. 이런 것도 비행이라고 하나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은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 심한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라고 말한다.

“비행청소년이란 용어 자체를 쓰고 싶지 않군요. 비행이야 어른들이 더 많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청소년이란 말 속에는 어른 중심의 잣대로 아이들을 보고자 하는 사고가 스며있다고 그 용어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한 청소년 전문상담원의 말이다. 서울의 야간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아무개씨도 이렇게 말한다.

“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 하는데 아이들이 지닌 그 복잡하고 엄청난 문제의 원인과 갖가지 모습들을 비행청소년이라는 말 속에 넣어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 떨떠름한 기분입니다.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찾지도 않으면서 자꾸 비행청소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짐을 지울 뿐입니다.”

즉 문제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 어른과 문제사회 속에서 빚어지는 병든 청소년문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당사자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른들에게 우리가 전부 문제아들로 보이냐 봐요. 하다못해 친구들과 시내에 나와서 군것질만 해도 ‘요즘 아이들은’ 하면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봐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는 공부만 하라고 성화인데 매스컴에선 ‘요즘 아이들 꿈이 없고 무섭다’는 소리만 해요. 우리보고 어찌란 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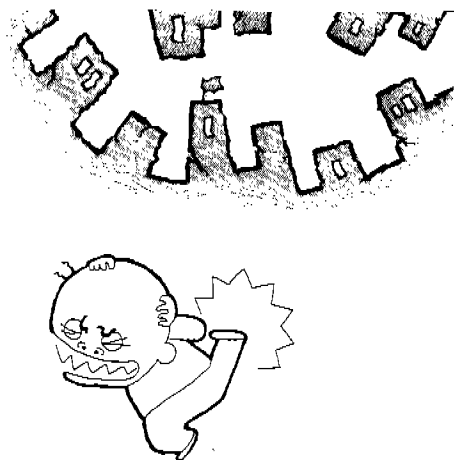
“청소년이 중요하다, 나라의 기둥이다 어쩌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매일 보는 시험을 하루 걸러 만큼만 보게 해 주면 제일 고맙겠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았으나 서나 ‘공부’ ‘공부’하는게 신물이 나요. 우리가 시험보는 기계인가요?”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와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어쩌다 마주치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부모들 못지않게 청소년들도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청소년들을 공부만 하도록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몰아 세우면서 “요즘 애들은 정서가 메말랐다”, “요즘 애들은 거칠다”는 말만 하는 “요즘 어른들”이 많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바쁜 아버지, 살림밖에 모르는 어머니와는 대화를 할 시간도 없고 어쩌다 진로문제나 이성의 친구얘기를 하려고 해도 통하기는 커녕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소리만 듣기 때문이다. 이래서 청소년들은 밖으로 나돌게 되는데 밖에 나가면 기성세대들은 자기네들을 모두 문제청소년으로 본다 그 그들은 호소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싫도록 들어온 아이들은 성적이 나쁜 것이 최대의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그 좌절감을 어찌할 수 없어 방황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병들 수

밖에 없어요. 학교에선 모든 가치가 성적 위주 아닙니까? 입시와 거리가 있는 실업고 학생들은 묘한 열등감에 젖어야 하고...”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하며 시험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갖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길은 ‘공부’로 통한다. ‘음악 들을 시간 있으면 공부해’ ‘친구 사귀지 마, 시간 뺏기니까……’ ‘네가 자고 있는 시간에 네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어. 공부해!’…… 모든 것이 입시로만 치달는, 그래서 다정한 친구까지도 경쟁자로 경계해야 하는 삭막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질식해 가고 있다. 그리고 더러는 그 숨막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밖으로 나간다고 이 힘들어하



는 아이들이 편히 쉬거나 위로받을 공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 저녁때 이 거리로 나와보세요. 마로니에 공원의 으스스한 곳에서 서로 엉켜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나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측은하기만 합니다. 사실 그 애들의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문화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저 여기 가면 안 된다, 저기 가면 안 된다 하며 금지구역만 만들어 주었지요.”

결국 아이들의 정신적 방황은 비행 또는 범죄로 빚나가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홍사단 간사의 이 말을 뒷받침하듯 아직 어떤 얼굴의 한 여중생은 이렇게 말한다.

“어른들도 답답하고 힘들면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기도 하구요. 우리들이라고 그러구 싶지 않겠어요? 현대 갈 곳이 없어요. 미술관이나 음악회 같은 것은 마음에 안 맞고... 웬지 우리들과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껏 가는 데가 오락실이나 빵집, 카페 같은 곳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짜증나고 지겨운 하루 하루에 우리가 맘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은 학교와 집, 그리고 버스정류장뿐’ 이라고 자조적으로 내뱉기도 한다.

“친구집에 모인대든지 공원 같은 데 가면 뭘해요. 이상하게 보이기만 할텐데. 집에선 공부 안하고 어딜 쏘다니느냐고 하구요.”

한창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이 사회는 철저히 틀을 만들어 가둔 채로 끊임없이 자극만을 주고 있다. 학교 담에는 성행위를 노출적으로 묘사한 영화 포스터가 버젓이 나붙어 있고 난잡한 도색

잡지와 서적이 거리에서 공공연히 팔린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오락실, 음악다방이나 카페, 당구장, 술집, 각종 활자매체, 누드사진... 이렇듯 사방에 널린 독소들이 충동질을 해대는 와중에도 허울 좋은 ‘미성년자 입장불가’ 따위로 흔들리지 말고 얌전히 공부나 하라는 주문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이다. 그런 속에서 한차례 뛰어나가다 단속이 되면 처벌을 받고, ‘문제학생’으로 낙인이 찍히고.....

“우리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곳, ‘청소년 출입금지’가 아닌 ‘청소년 출입환영’이란 글이 붙은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탈선이나 비행이란 말도 쑥 들어갈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만 나쁘다고 꾸짖지 말고 잘 자라나도록 키울 방법도 생각해 주셔야죠. 나쁜 책을 사는 청소년도 나쁘지만 그걸 파는 어른이 더 나쁜 것이 아닌가요? ‘미성년자 입장불가’라는 딱지만 한 장 붙여 놓으면 청소년 선도가 다 되는 양 쉽게 생각하려는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딱합니다.”

야무지게 항변하는 이 여고생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문화는 향락문화이며 소비를 부채질하는 문화이다. 성이 상품화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을 거기에서 지키기엔 어른의 세계가 너무나 타락했다.

주말이나 공휴일 모처럼 잠시 휴가분해된 청소년들은 젊은 연예인이 나오는 TV 오락물이나 프로스포츠, 저속한 외래 문화에 빠져 시간을 보낸다. “두들겨 부수는 듯한 노랫소리와 애들의 ‘악악’ 소리가 나오는 이 시간이면 TV를 꺼버리고 싶다”는 한 주부는 “요즘 애들의 이상한 머리모양과 옷차림도 여기서 다 배운 것 같다”면서 공영방송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느냐고 묻는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시청하는 황금시간대에 TV는 밤무대를 방불케 하는 낮뜨거운 쇼프로를 토해내고 있고 음란 비디오는 만화가게는 물론 안방구석까지 파고 들었다. 이러한 속에서 아이들에게 ‘건전하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그리고 병든 우리 문화 자체가 청소년의 문화를 병들게 하고 그들을 이상한 길로 내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위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어른들은 문제제기는 잘하나 책임을 자기들의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청소년들의 가치관마저 흔들리게 한다. 자기는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아이들 보고는 공부하라고 채찍질 한다. 어른은 주색에 골아있으면서 청소년에게는 정숙을 강요한다. 자기는 헐잡해서 돈 벌면서 요새 청소년은 질서를 안 지킨다고 불평한다. 어른은 멋대로 놀면서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한다. 자기는 기업의 돈을 챙겨 주머니에 넣으면서 근로청소년에게는 허리띠를 다같이 졸라매자고 한다. 어른은 폭력을 구사하면서 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꿈틀거리는 청소년보고는 폭력을 사용하면 혼내주겠다고 협박한다.

성실하게 살라고 어른들은 말하지만 성실하게 산 사람이 성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하기만 하고 못 살게 되는 것을 보아온 아이들, 일그러진 교육풍토에서 도피처를 찾다가 이 사회의 병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아이들은 손쉽게 범죄의 길로 들어선다. 소년범죄의 동기별 상황을 보면(대검찰청 자료) ‘우연히’가 27%로 가장 많고 유흥비 조달이 그 다음이다. 이 단계에서도 어른들의 타락과 무관심은 아이들을 더욱 망치기에 충분하다.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 돈을 뺏다가 구속 기소되어 두 달만에 집행유예

로 나왔다는 한아무개군(18세, 직공)은 이렇게 말한다.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잘못을 저질러도 돈 많고 학교 다니는 놈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네요. 구치소 가니까 다들 그런 애길 하던걸요. 돈 있고 뺑 있으면 다 나온대요.”

이처럼 비행이나 범죄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의 배경에는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정신적 풍토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청소년들의 문제다. 대학졸업장이 없으면 취직시험 응시나 행세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현실에서 매년 약 9만명의 중학졸업생, 38만명의 고교졸업생이 가정형편상 또는 성적이 못미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전선에 나서거나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위주교육의 희생자라 할 이들이 낙오자 아닌 당당한 사회인이 되도록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도와주는 일이 시급하지만 직업교육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수용인원도 적어 거의 버려진 상태이다. 이처럼 방치된 많은 청소년들은 주로 잡일, 잡역을 하는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서 준실업적 고용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범죄의 유혹을 받기 쉽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청소년 대책은 학생, 즉 학교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두었을 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진로나 지도문제는 거의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아란 없다. 문제의 부모, 문제의 가정, 문제의 교사가 있을 뿐이다”던 교육학자 ‘니일’의 말처럼 사실 병든 청소년문화와, 그 안에서 빚어지는 범죄와 비행은 우리 사회가 지닌 병폐의 축소판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우리 현실이 뿌리내리고 있는 역사와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 변화와 교육제

도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소비적 쾌락풍조, 인명 경시의 풍조, 문란한 성도덕……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이들에게 말로 강요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 사회에 만연된 흐름 아십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학 교수의 말도 결국은 사회 변화가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아니 그것을 위해서는 작지만 힘겨운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아이들 놀이문화의 개발,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을 없애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거기에 속할 것이다. 일단 비행이 발생하면 법을 청소년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일 것이다. 자신의 자녀만 단속하고 잘 기르려고 하기보다 이웃이나 자녀의 친구들도 잘 못하면 깨우쳐주고 부모끼리 의논해서 함께 바른 길을 찾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문제를 저질렀다는 아이들일수록 함께 이야기 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큰 기쁨을 느끼며 감동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사의 애정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모두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청소년들을 대했으면 합니다.”

한 청소년 선도위원의 말처럼 아이들의 세계와 그들이 가진 고민을 이해하려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이상한 행동 뒤에 감추어진 깊은 뜻을 읽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그들의 삶을 구하는 하나의 길이 될런지도 모른다.